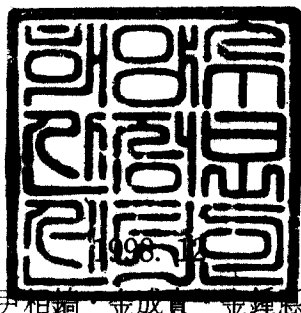


漁村親水空間 開發에 관한 研究

—개념 및 계획수립방안을 중심으로—



尹相鎬 · 金成眞 · 金鏗志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024853

머리말

1990년대 들어 지속되는 수산물 생산의 담보와 자원고갈, 수산물 시장의 개방 등 어촌지역사회의 급격한 여건변화는 어촌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심화, 어업가구 소득의 상대적인 열위 지속, 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 및 생산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어업 생산성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 어촌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향의 필요성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향 중 하나로 어촌과 친수공간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이 있다.

이와 같은 어촌지역에서의 친수공간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관광 부문과도 직결되어 연안어촌·도서 등의 개발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촌지역 개발계획은 어촌종합개발계획과 도서종합개발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산업기반시설과 생활환경 투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관광개발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촌관광의 규모가 전체 국민관광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무시된 개발방향이며 향후 어촌의 비전과 합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은 해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에는 연어소상지역 및 하천매물지역에 대한 친수공간 개발계획, 남해안에는 풍부한 수산물과 도서지역의 개발과 연계하고 태풍 등의 자연 피해지역에 대비한 친수공간 개발계획, 서해안지역에 대해서는 방조제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친수공간 개발계획 등 차별화된 친수공간 개발계획과 더불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의 친수공간에는 자연적 및 인공적 공간을 포함하여 어촌친수시설 등의 사업이 친수공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친수공간사업은 어촌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창선대교, 가덕대교, 고성-마산간 연육교 등의 교통망이 조만간에 개통예정으로 있어 관광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수산업의 퇴조, 가용토지의 확보, 다양한 해양환경보유 등의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경남 남해군 서면 지역을 사례로 권역별로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윤상호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김성귀 연구위원, 김종덕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많은 자료협조와 자문을 하여 주신 쌍용엔지니어링의 김광두 상무님, 경남 고성의 김정조 동해낚시공원 사장님, 전남 보성군청 이경로 과장님, 전북 부안 격포 나영주 어촌계장님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연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심껏 연구조원으로 수고한 장덕모 군과 도면작업을 지원해 준 박한산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로서 우리 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며 더욱이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長 洪 承 湧

漁村親水空間 開發에 관한 研究

지금까지 어촌지역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은 어촌종합개발계획과 도서종합개발계획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물리적인 개발계획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자연조건, 잠재력 등이 고려된 공간적인 접근성과 친수성이 도입된 개발계획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어촌관광객수의 분포가 전체 국민관광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지역의 친수산업, 친어민, 친환경적인 친수시설과 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은 제3섹터로 잘 운영하여 친수공간시설을 자체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항만, 제재소 등의 부지에 해양생태공원, 친수공간시설 등을 확보하여 상업적인 용도 이외에도 문화관광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고성, 전남 보성 등지에서는 어촌친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여 소득사업으로 연계화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으며 운영상의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은 해안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해안에는 연어소상지역 및 하천매물지역에 대한 친수공간 개발계획, 남해안에는 풍부한 수산물과 도서지역의 개발과 연계하고 태풍 등의 자연 피해지역에 대비한 친수공간 개발계획, 서해안지역에 대해서는 방조제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친수공간 개발계획 등 차별화된 친수공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Waterfront

There is no plan in typical fishing village waterfront development in Korea. The fishing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and the island development plan are the major development plan in fishing village since 1994. This study aims to benchmark the foreign country case such as USA, Japan. The third sector method is well applied to the Japan fishing village. We have the fishing village waterfront facilities such as fishing park, fishing pool in the near the south sea. The management part the waterfront facilities is not the third sector but private or public sector. We make the five stages in practicing the fishing village waterfront development plan. So we have the effort to apply the Seo Myon region locating in Nam-Hae Kun.

In conclusion, the fishing village waterfront facilities make the spread effect such as employment effect, income effect etc.

목 차

第 1 章 序 論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2
第 2 章 漁村의 變化와 展望	3
1. 우리나라 어촌개발정책의 현황	3
2. 어촌을 둘러싼 제반여건의 변화	14
3. 어촌의 새로운 미래상과 기회	32
第 3 章 漁村親水空間의 概念과 類型	36
1. 어촌친수공간의 개념	36
2. 어촌친수공간 도입가능 시설 및 분야	41
3. 친수공간의 개발기술	44
4. 어촌친수공간의 유형	50
5. 해외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54
第 4 章 漁村親水空間 開發計劃 樹立方案	65
1. 체계적 계획의 필요성	65
2. 단계별 계획수립과 계획기법의 제안	65

第 5 章 國內 漁村親水空間 및 開發計劃 事例	73
1. 國內 어촌친수공간 사례	73
2. 개발계획수립 사례(남해군 서면권역)	82
3. 사례지역의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안)	107
第 6 章 結論 및 綜合建議	111
參考文獻	113

표목차

〈표 II-1〉 어촌종합개발 장기투자계획	5
〈표 II-2〉 1994~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역별 투자현황	6
〈표 II-3〉 1994~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문별 투자현황	6
〈표 II-4〉 어촌종합개발사업 총괄 투자실적 및 계획	7
〈표 II-5〉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사업추진 및 투자총괄	7
〈표 II-6〉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사업별 투자실적	8
〈표 II-7〉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단계별 사업량 및 사업비	9
〈표 II-8〉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10
〈표 II-9〉 어촌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의 부문별 투자규모	11
〈표 II-10〉 어촌 및 수산업의 여건변화	16
〈표 II-11〉 어촌 및 수산부문 주요 투자계획	18
〈표 II-12〉 우리나라 여가발전의 단계와 특징	23
〈표 II-13〉 연도별 외래관광객 입국현황	24
〈표 II-14〉 우리나라 여행수지 현황	24
〈표 II-15〉 국민여행 참가자수 및 경험률	24
〈표 II-16〉 국민관광 여행경비 변화	25
〈표 II-17〉 여행시 교통수단 비교	26
〈표 II-18〉 여행시 목적지 활동	26
〈표 II-19〉 여행시기 비교	27
〈표 II-20〉 여행 동반자 형태 변화	27
〈표 II-21〉 어촌관광규모 현황 추정	29
〈표 II-22〉 어촌관광 시장규모 추정	30
〈표 II-23〉 어촌관광 여행목적	30
〈표 II-24〉 어촌관광 여행시기	31
〈표 II-25〉 어촌관광 희망활동	32

〈표 III-1〉 수변 입지별 친수활동 형태	38
〈표 III-2〉 어촌친수공간의 구조적 위치	40
〈표 III-3〉 어촌친수공간 기술개발의 현황	47
〈표 III-4〉 위치에 따른 어촌친수공간 분류	51
〈표 III-5〉 기능에 따른 어촌친수공간 분류	51
〈표 III-6〉 투자자원별 구분	53
〈표 III-7〉 관리체제에 의한 분류	53
〈표 III-8〉 일본의 어촌친수공간 관련사업 및 법규	54
〈표 III-9〉 일본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개요	55
〈표 III-10〉 미국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개요	60
〈표 IV-1〉 어촌친수공간 단계별 개발계획 추진절차	66
〈표 IV-2〉 어촌친수공간 개발시 조사항목(예)	68
〈표 IV-3〉 어촌친수공간 개발의 분야별 목표(예)	70
〈표 IV-4〉 어촌친수공간 건설시 고려해야 할 비용(예)	71
〈표 V-1〉 우리나라 어촌친수공간 관련사업별 현황	74
〈표 V-2〉 국내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개요	74
〈표 V-3〉 대포항 개요	75
〈표 V-4〉 남해군 서면권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83
〈표 V-5〉 서면 인구구성	84
〈표 V-6〉 서면의 농업환경 현황	85
〈표 V-7〉 어업생산 및 소득 현황	86
〈표 V-8〉 남해군 어항별 선착장 소요	87
〈표 V-9〉 서면의 토지이용 현황	89
〈표 V-10〉 남해군 주요 관광자원 현황	92

〈표 V-11〉 서면 주요 관광자원 현황	92
〈표 V-12〉 남해군 연도별 관광객 추이	93
〈표 V-13〉 남해군 및 서면 상수도 현황	93
〈표 V-14〉 경상남도 및 남해군 도로시설 현황	95
〈표 V-15〉 서면 주요도로 현황	96
〈표 V-16〉 서면권역 어촌친수공간 계획(안)	108

그림목차

〈그림 II-1〉	어촌의 라이프라이클상의 위치	22
〈그림 II-2〉	국민관광과 어촌관광 참여율 비교	29
〈그림 II-3〉	어촌지역의 미래상에 따른 개발 비전	34
〈그림 III-1〉	어촌친수공간의 공간적 범위	39
〈그림 III-2〉	어촌친수공간개발 도입가능 사업분야	43
〈그림 III-3〉	어촌친수공간과 관련된 기술분야	45
〈그림 III-4〉	기능별 어촌친수공간의 모형	52
〈그림 III-5〉	千葉縣 勝浦 해중전망대 전경	56
〈그림 III-6〉	千葉縣 富津市 체험어장 모습	57
〈그림 III-7〉	千葉縣 千倉町の 潮風王國 전경	58
〈그림 III-8〉	静岡縣 해변의 과거와 현재 모습	59
〈그림 III-9〉	廣島縣 인공 백사장 모습	60
〈그림 III-10〉	Skamokawa의 어촌친수공간	61
〈그림 III-11〉	Seaside의 해변공원	62
〈그림 III-12〉	Edmonds의 해양생태공원	63
〈그림 III-13〉	Arcata의 습지생태공원	64
〈그림 V-1〉	경남 고성 동해 낚시공원	76
〈그림 V-2〉	전남 보성 해수풀장	77
〈그림 V-3〉	전북 부안 격포항 수산물 공동판매장	78
〈그림 V-4〉	물치항 친수공간 개념도	79
〈그림 V-5〉	신암리 친수성 호안 개념도	80
〈그림 V-6〉	사천진리 낚시터 구상도	81
〈그림 V-7〉	서면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84
〈그림 V-8〉	남해군 도로망도	97
〈그림 V-9〉	장항지역 해변	103
〈그림 V-10〉	서상지역 전경	104

〈그림 V-11〉 작장지역 해변	104
〈그림 V-12〉 정포지역 해변	105
〈그림 V-13〉 서면권역의 해안자원환경 분포	106
〈그림 V-14〉 서면권역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	109

第1章 序 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촌은 전반적인 수산업의 쇠퇴에 기인하여 점차 삶의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어업인구는 매년 2.5%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1997년 현재에는 17만 4천명으로 1980년 32만 3천명의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산물 총생산량은 1998년에 303만톤에 그쳐 1985년 이후 계속적인 담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GNP 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그치고 있다. 어가소득은 198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산물 소비 증가추세에 편승하여 1990년도에 비해 1997년에 두 배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여전히 도시가계소득의 74%, 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등 상대적 열위상황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어가소득 중에서도 어업외소득은 전체 소득의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업외소득은 47%는 농업소득으로서 소득구조 역시 매우 단순·취약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또 상수도나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도로 등 생활환경시설도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정주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촌의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촌을 이용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바다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관광의 장소로서 최근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식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 현지에서의 관광객에 의한 수산물 소비 패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 바다에 대한 동경과 관심의 증가로 해안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레저와 여가활동 인구가 크게 늘고 있고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도시민들은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쾌적한 해안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어촌을 둘러싼 두 가지의 큰 흐름, 수산업의 전반적인 쇠퇴와 바다와 어촌으로 향하는 관광객 증가 현상은 새로운 어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투자방향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수산업 및 어촌관광을 위한 새로운 어촌기반정비 방안으로서 어촌친수공간의 보급을 제안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 도출 및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친수공간적 기능을 발전시켜 새로운 어촌의 인프라로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 어촌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어촌정비의 방안으로서 어촌친수공간을 제안코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개발정책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촌을 둘러싼 제반여건을 국내 경제·사회여건 분석, 어촌 및 수산업의 여건분석, 관광행태의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어촌의 미래상과 이의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어촌친수공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어촌관광에 대한 의식조사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촌관광부문의 전망을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촌친수공간에 대한 개념과 유형 분류, 도입시설 검토와 국내 사업화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해외 어촌친수공간의 현황과 특징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어촌친수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주민 참여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기법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이거나 시행된 어촌친수공간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제시된 계획조사기법의 적용 사례로서 경남 남해군 서면 권역의 개발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방향과 제안을 기술하였다.

第2章 漁村의 變化와 展望

1. 우리나라 어촌개발정책의 현황

1) 어촌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어촌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전체 국토의 일부분이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2차, 3차 산업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도시지역에 대비되는 지역의 의미로 1차 산업 생산지인 농어촌의 범주에 넣어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역개발의 한 대상지역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어촌지역 경제의 핵심인 수산업의 배후공간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인식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정주권이 생성된다는 산업위주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의 보편적 이론으로 알려진 경제성장 이론, 입지론, 중심지 이론, 성장거점 이론 중 특정 논리로는 현재의 우리나라 어촌의 현재 위치와 개발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80년대 말까지의 어촌문제의 접근방법은 농촌지역 개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국토의 거점중심의 개발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수산정책은 어촌문제와는 별개로 인식되어 생산과 가격유지 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면서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간의 집중투자와 인구집중에 의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농어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UR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이 수산부문에 밀려 오면서 생산과 가격정책에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직접적인 생산조절과 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제가 현실화되고 이것이 또 다른 통상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산업으로서의 수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종사자인 어민, 어민의 생활터전인 어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난관에 봉착하고야 수산업과 어민, 어촌의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이 구축되게 된 것이다. 수산인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어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현실화되어 갔으며 어촌이 국토의 최말단부에 위치한 소외공간이 아니라, 수산인의 생활터전은 물론 도시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이라는 시각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발생과 동시에 뒤따랐어야 할 투자는 여전히 재원부족이라는 현실 상황논리에 묶여 어촌의 개발은 늦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3년 12월 UR은 타결을 보았고 WTO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본격화되자 그간의 투자미흡에 대한 보상차원의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농특세에 의해 어촌과 어민의 복지와 새로운 기반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어촌개발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명명된 권역별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추진된 것이다.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비수산투자 사업인 도서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과 더불어 어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사업중 어촌에 대한 직접투자효과가 미미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제외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어촌개발사업은 1970년대부터 (농어촌)새마을 사업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1988~92년도에는 어촌(계)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었으며 이 기간중 65개소(187억 4,200만원, 국고 70%, 지방비 30%)에 지구당 3억원씩의 지원이 있었으며 집행주체는 시·도였다. 그러나 투자액 미흡으로 마을간, 어촌간의 연계투자가 미흡하였고 산발적 투자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1994년도부터 권역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농특세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로 지원재원이 마련되면서 권역당 사업비가 35억원으로 증액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기존의 투자와는 달리 마을간, 어촌간의 연계개발, 산발적 투자지양, 미지원 어촌계의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사업의 틀을 갖게 되었다.

〈표 II-1〉 어촌종합개발 장기투자계획

구 분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4
권역수	160	10	11	16	15	15	93
사업비	543,170	13,170	52,500	56,000	52,500	52,500	316,500
국고	271,585	6,585	26,250	28,000	26,250	26,250	158,250
지방비	244,426	5,926	23,625	25,200	23,250	23,625	142,425
자담	27,159	659	2,625	2,800	2,625	2,625	15,825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특별세법」이 제정되고 농특세 투자계획이 확정되면서 1995~2004년간 총투자규모가 5,43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을 어업환경에 따라 225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중 우선순위에 따라 160개 권역(권역당 35억원)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계획이 수립되었다.

(1)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1994~98년 투자권역은 총 77개 권역으로서 총 투자액은 2,210억 2,500만원(권역당 평균 28억 7천만원)이며 지역별 투자 내역은 〈표 II-2〉와 같다.

1994~98년까지의 부문별 투자현황을 보면 전체 투자액의 약 35%가 어항시설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촌관광, 도로정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II-2〉

1994~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역별 투자현황

도 별	권 역 명	투자액 (백만원)
인 천	덕적, 백령, 연평	19,584
경 기	서신, 우정	6,944
강 원	근덕, 토성, 현북, 강릉, 속초, 동해, 죽왕, 강현	23,830
충 남	오천, 안면, 관당, 근소, 당진, 외연	17,860
전 북	고창, 변산, 고창2, 위도, 옥도	14,776
전 남	신지, 풍남만, 남면, 대둔도, 금계초사, 득량중부, 만호, 여자만, 임자, 낙월, 대구, 득량, 보길, 순천만, 충무, 홀통, 돌산, 금갑죽림, 북평, 득량남부	56,098
경 북	영일만, 후포, 울릉서, 축산, 감포, 모포, 오산, 강구	21,553
경 남	사천, 앵강만, 저구만, 한산만, 동해거류, 사천2, 산양, 구산만, 남미조, 사천3, 자란만, 장목만, 사랑, 용남, 설천, 당항	44,999
울 산	강동, 서생1	4,265
제 주	구좌, 모슬포, 추자, 한경, 남원서, 성산동, 애월	21,116
합 계	77개 권역	221,025

〈표 II-3〉

1994~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문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어항 시설	어촌 관광	양식 시설	수산 자원	유통 시설	어업 지원	가공 시설	생활 환경	도로 정비	어민 복지	해안 시설	기타
총투자액 (%)	77,144 (34.9)	41,194 (18.4)	13,062 (5.9)	15,958 (7.2)	4,150 (1.9)	11,124 (5.0)	12,022 (5.4)	1,446 (0.7)	31,550 (14.3)	8,315 (3.8)	4,431 (2.0)	630 (0.3)
투자건수	367	133	67	230	23	96	45	42	180	40	34	23
건당 투자액	210	310	195	69	180	116	267	34	175	208	130	27

투자건당 투자액은 어촌관광시설이 3억 1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가공시설, 어항시설의 순이었다.

〈표 II-4〉 어촌종합개발사업 총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계	1994~1996	1997	1998	1999 계획	1999~2004
권역수	160	38	23	32(16)	24(16)	75
사업비	5,432	1,217	555	421	349	2,890

주: ()내는 계속사업 권역임.

현재까지의 투자실적을 종합하면, 총 계획대상 160개 권역중 77개 권역이 완공되어 4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 5,431억 7천만원 중 2,192억 7천만원(용역설계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 2,210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40.4%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특세의 세수결함 등으로 인해 재원투자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소득지원사업 중 개발과정에서 부정과 부실공사로 인해 몇 가지 폐해들이 발생됨에 따라 향후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 도서종합개발사업

(1) 제1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1988~97)계획기간동안 내무부(행정자치부) 등 8개부처가 9,706억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 3,10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II-5〉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사업추진 및 투자총괄

구 분	기본계획(A)	투자실적(B)	진도(B/A, %)
사업량(건)	3,997	3,106	77.7
사업비(억원)	3,886	9,706	249.8

자료: 행정자치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안)」, 1997.

〈표 II-6〉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사업별 투자실적

단위 : 천, 억원, %

구 분		기본계획(A)		투자실적(B)		진도(B/A, %)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997 (100)	3,886 (100)	3,106 (100)	9,706 (100)	77.7	249.8
생활 기 반 시 설	소 계	1,330 (33.3)	2,126 (54.7)	1,046 (33.7)	4,659 (48.0)	78.6	219.1
	급수시설	284 (7.2)	206 (5.3)	311 (10.0)	420 (4.3)	109.5	203.9
	전기시설	169 (4.2)	137 (3.5)	159 (5.1)	1,315 (13.6)	100.7	959.9
	도로시설	837 (20.9)	1,755 (45.2)	532 (17.2)	2,861 (29.5)	63.6	163.0
	의료시설 등	40 (1.0)	28 (0.7)	44 (1.4)	63 (0.6)	110.0	225.0
생 산 기 반 시 설	소 계	12,128 (53.2)	1,581 (40.7)	1,636 (52.7)	4,727 (48.7)	76.9	299.0
	어항시설	996 (24.8)	1,288 (33.1)	993 (32.0)	4,399 (45.3)	99.7	341.5
	방 조 제	255 (6.4)	123 (3.2)	111 (3.6)	84 (0.9)	43.5	68.3
	배수갑문	335 (8.4)	42 (1.1)	25 (0.8)	11 (0.1)	7.5	26.2
	기타(농업용수등)	542 (13.6)	128 (3.3)	507 (16.3)	233 (2.4)	93.5	182.0
환 경 개 선 사 업	소 계	539 (13.5)	179 (4.6)	424 (13.6)	320 (3.3)	78.7	178.8
	복지·편의시설	132 (3.3)	59 (1.5)	58 (1.8)	179 (1.8)	43.9	303.4
	하수도시설	61 (1.5)	17 (0.4)	65 (2.1)	29 (0.3)	106.6	170.6
	하천정비	87 (2.2)	44 (1.2)	49 (1.6)	53 (0.6)	56.3	120.5
	기타	259 (6.5)	59 (1.5)	252 (8.1)	59 (0.6)	97.3	100.0

자료 : 〈표 II-5〉와 동일.

분야별로 살펴보면 분야별 투자순위는 생산기반시설(48.7%), 생활기반시설(48.0%), 환경개선사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지역여건상 가장 필요한 선박접안시설 등 어항시설(45.3%)과 주민의 육상교통로인 도로시설(29.5%)의 투자비율이 높았으며 따라서 주민의 소득 및 교통소통과 관련되는 사업에 집중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상 총 투자소요금액은 2조 1천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가 53.7%인 1조 1,281억 6200만원, 해양수산부등 다른 부처가 46.3%인 9,718억 3,800만원 등으로서 향후에는 주로 행정자치부가 도서개발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공투자액이 89%인 1조 8,704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64%인 1조 3,445억원이며 지방비가 25%인 5,259억원이다. 또한 민·용자가 11%인 2,296억원으로 주로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투자계획은 일시에 동시에 투자가 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제1단계인 1998~2002년에는 총투자액의 57%인 1조 1,979억 6,500만원이 투자되고 제2단계인 2003~2005년에는 26%인 5,527억 1,800만원이 투자되며 제3단계인 2006~2007년에는 17%인 3,493억 1,7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고 있어 생산기반시설, 생활기본시설 및 환경·복지시설 등이 동시에 수립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II-7〉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단계별 사업량 및 사업비

시·도 별	개발대상 도서수	사업량 (건)	사업비 추정(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용자
합 계	408	4,109	2,100,000	1,344,483	525,886	229,631
1단계(1998~2002)	408	1,704	1,197,965	853,864	307,782	36,319
2단계(2003~2005)	408	1,556	552,718	264,257	130,942	157,519
3단계(2006~2007)	408	849	349,317	226,362	87,162	35,793

자료: 〈표 II-5〉와 동일.

〈표 II-8〉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부 문 별	사 업 명	단 위	사업량	사업비 추정(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용자
	합 계	도서/건	408/4,109	2,100,000	1,344,483	525,886	229,631
	생활기반시설	도서/건	408/1,387	744,971	532,444	192,024	20,503
	급 수 시 설	도서/개소	204/213	168,203	166,375	49,823	2,005
	전 기 시 설	〃	57/54	13,735	6,701	3,530	3,504
	도 로 시 설	〃	297/1,069	544,005	401,263	135,283	7,459
	도 선 건 조	도서/척	50/51	19,028	8,105	3,388	7,535
	생산기반시설	도서/건	381/1,993	1,217,927	717,998	305,055	194,874
	어 항 시 설	도서/개소	351/1,072	921,091	634,132	265,726	21,233
	농업기반시설	〃	67/188	35,797	25,928	9,303	566
	산림기반시설	〃	51/90	25,922	12,984	10,775	2,163
	저 장 시 설	〃	157/385	95,321	22,888	9,627	62,806
	소득증대시설	〃	141/258	139,796	22,066	9,624	108,106
	환경·복지개선	도서/건	228/730	137,102	94,041	28,807	14,254
	환경·위생	도서/개소	177/263	62,152	38,821	16,559	6,772
	의료·복지	〃	136/263	74,950	55,220	12,248	7,482

자료: 〈표 II-5〉와 동일.

4) 어촌지역 개발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어촌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의 특징 비교

두 사업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자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수산 종사자들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기반정비와 생활정비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어촌개발사업이 대상권역의 여건과 향후의 잠재력 평가를 통한 중심지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도서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어촌개발사업이 지역수산업과 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투자되는데 비해 도서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되어 행정구역과 사업별로 투자되고 있다.

넷째, 어촌개발사업은 중앙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의 10년 장기투자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투자되고 있으며 권역별 기본계획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투자되고 있으나, 도서개발사업은 시도별 연차별 투자내역이 확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대상지역이 같은 어촌지역이지만 도서개발사업은 연안어촌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또 도서의 특성에 따라 농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여섯째, 어촌개발사업은 권역의 중심지 선정을 통한 집중투자유도를 중요한 개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개발사업은 낙후지역 배려측면에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9〉 어촌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의 부문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어항시설	생활·환경 시설 ¹⁾	도로시설	복지시설	관광 및 소득증대시설	자원조성 등 기반시설 ²⁾	계
어촌개발 사업 ³⁾	77,144 (34.9)	5,877 (2.7)	39,550 (14.3)	8,315 (3.8)	41,194 (18.6)	56,946 (25.8)	221,025 (100.0)
도서개발 사업 ³⁾	921,091 (43.9)	263,068 (12.5)	544,055 (25.9)	74,950 (3.6)	139,796 (6.7)	157,040 (7.5)	2,100,000 (100.0)

주 : 1) 생활환경시설 : 생활환경시설, 생활기반시설, 환경·문화시설, 해안시설

2) 자원조성 등 기반시설 : 양식시설, 수산자원조성, 유통시설, 어업지원시설, 가공시설, 농업·산림기반시설, 저장시설, 기타

3) 어촌개발사업은 1994~98년 투자내역이며 도서개발사업은 제2차 10개년 투자계획임.

두 사업의 분야별 투자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문은 어항시설이다. 두 사업 공히 어촌을 대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개발사업은 1, 2, 3종의 지정어항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외되도록 하고 소규모항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도서개발사업은 연안항과 1, 2, 3종항, 소규모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집행될 계획이다.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가진 분야는 어촌개발의 경우 수산업과 관계되는 자원조성, 유통·가공시설 등이며 도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시설 사업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비중을 가진 사업으로는 어촌개발사업이 어민의 어업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어촌관광 및 부업사업이며 도서개발사업은 생활환경시설 부문이다. 이렇게 두 사업간에는 여러가지의 차이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계획과 투자의 특이점을 표출하고 있다.

(2) 어촌지역개발의 문제점

앞서 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의 현황과 투자실적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어촌지역은 나름대로의 개발논리, 즉 수산업이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어촌을 접근하는 방식과 지역의 일부로서 균형개발 측면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사업의 투자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사업이 소관부처의 정책방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투자액이 부족하여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어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소득관련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계획수립시 건설계획에만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사후관리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실패 요인을 살펴본다면 실제 지역에 소득을 안겨줄 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차량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어 관광객들은 아주 사소한 불편에도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재방문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주차장, 도로, 용수, 숙박 등의 기본적인 시설들의 보급이 늦어지고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종합적인 여건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어촌지역의 친수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방문객들의 편의와 감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위치나 문화자원들이 관광객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시설인 어항의 경우에도 규모 결정시 수용어선의 세력으로 규모가 결정되며 항만시설에 비해서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나, 각종 어구나 장비들로 주변환경이 번잡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쾌적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많은 형편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각종 어촌의 개발계획에서 실질적인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촌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의 수요수준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수행의 개념 미비와 사업시행의 경직성과 더불어 기술개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어촌의 가장 큰 자연환경인 바다와의 친수기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선착장은 수산업적인 용도만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곳의 한쪽 편에 난간이나 벤치시설을 할 경우 바다의 전망대 역할과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내방객은 쾌적한 바다풍경을 편안한 자세로 충분히 감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소한 설계상의 배려가 지역의 주요한 친수시설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향후 어촌지역의 개발은 천편일률적인 토목·건설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조건, 잠재력 등이 고려되어 좀 더 세밀한 배려와 연구가 있어야만 수산, 어촌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이것이 또 다른 친수산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제는 이러한 다목적공간 조성을 통한 어촌의 재활력(revitalization)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어촌을 둘러싼 제반여건의 변화

1) 국내 여건의 변화와 전망

우리나라는 1997년말 도래한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에는 전국이래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민소득은 1997년의 9,046달러에서 6,300달러로 30%의 기록적인 감소를 나타냈으며 대량 실업사태와 소비감소 등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경제의 한계상황을 맞이 하였으나, 1998년 말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상보다 회복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제안정은 우리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보다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여 낙관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유류비 상승과 사료비용 증가, 각종 어자재가의 상승, 수산물 소비부진 등 생산과 유통의 전반적인 비용상승과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관광분야의 거품이 빠지면서 국내관광의 비중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어촌지역의 관광 잠재수요는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기회를 위한 여건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가 더 건실해져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어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내의 제반여건 변화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용하여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로 야기된 소득저하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고 소비저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생산,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의 구조개편과 거품의 제거가 이루어질 것이

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분야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건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각종 SOC의 개발, 특히 균형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문화·관광분야의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이 분야의 투자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 확보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셋째, 인구구조가 점차 노령화되고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버산업의 등장이 예견된다. 의료, 휴양, 건축 등의 분야에서 고령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용도의 공간창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넷째,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바다와 관련된 新산업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해양자원의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생명공학, 유전공학의 지속적 발달로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해양관련 서비스산업이 태어나고 해양강대국의 기틀 마련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섯째,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커져갈 것이며 특히 수산물 생산지에서의 직접소비 패턴이 어촌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수산물의 증·양식의 발달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환경과 수산업을 급속히 쇠퇴시키는 대규모 간척사업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해양 생태계 보전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규모 매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친화적 개발기법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거가 용이한 자재보급,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건설기법,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개발 등이 주요한 관심이 될 것이며 어촌지역개발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어촌 및 수산업의 여건변화

어촌과 수산업은 규모나 생산면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성장을 해왔으나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의

탈어촌화가 이루어져 왔다.

1980년과 1997년 사이의 어촌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0〉

어촌 및 수산업의 여건변화

구 분	1980년	1997년	변화율(%)
• 인구수(천명)	323	174	△46.1
- 20~39세 인구(명)	117	31.2	△73.3
• 가구수(천호)	157	100	△36.3
• 전업어가(호)	28,051('90)	20,407	△27.3
• 수산업 부가가치(10억원)	465.5	2,493.5('96)	436
• 수산업GNP 비중(%)	1.2	0.6	△50.0
• 어가소득(천원)	2,596	20,331	683
- 농가소득(천원)	2,693	23,488	772
- 도시가계소득(천원)	2,809	27,448	877
• 수산물생산량(천M/T)	2,410	3,244	34.6
• 어선척수(천척)	77.6	81.0	4.4
- 어선통수(천톤)	771	964	25.0
• 수산물 수출(천달러)	1,513,094('90)	1,492,588	△1.4
• 수산물 수입(천달러)	368,095	1,045,474	184
• 어촌계수	1,598('90)	1,742	9.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및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인구 및 가구변화

1997년 현재 어업종사자는 17만 4천명으로 1980년의 32만 3천명의 54%에 그치고 있으며 어업가구원수는 32만 3천명으로 1980년의 84만 4천명에 비해 62%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업가구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것과 대규모 간척매립 등으로 감소된 것에 기인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9세의 청장

년총이 1980년도의 39.6%에서 1997년도 17.9%로 그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60세 이상의 분포는 6%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실질 노동력의 상실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수산업의 비중과 수산물 생산

수산업의 부가가치는 1996년 현재 2조 5천억원 규모로 1980년도의 4,655억 원에 비해 5.4배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속도는 농업부문의 4.4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타부분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GNP에서의 수산업 비중은 현재 0.6%에 그치고 있어 전체 수산업 규모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가소득

어가소득은 1997년 처음으로 2천만원대에 진입하였으나, 농가소득에 비해 87%, 도시가계소득에 비해 74%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외소득은 29%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것 또한 47%는 농업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촌에서의 소득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수산물 생산

수산물 생산량은 198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되었지만 1990년도 이후 답보 상태에 있으며 부문별로도 천해양식업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은 자원고갈과 각종 규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종별로도 해조류만 약간 증가하였을 뿐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획기적인 자원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감소 추세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어선세력

어선세력은 1990년 이후 꾸준한 감척과 구조조정 정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에는 불법어선 양성화 정책으로 일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선척수는 비교적 크게 감소되고 있으나 전체 톤수는 증가추세에 있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동력선은 급속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산물 수출입

수산물 수출은 1990년 이후 15억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1995년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수입은 1990년대 초반 5억달러 규모에서 무역자유화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급속히 늘어 1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완전자유화의 여파로 무역역조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어촌조직

어촌지역은 전통적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자생적 조직인 어촌계는 공동어장관리,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공동 투자사업추진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촌계 조직 기준의 완화로 점차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11〉

어촌 및 수산부문 주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8까지	1999 이후 계획
• 어촌개발	221,025	543,200
• 어항	1,478,600	1,520,800
• 양식시스템	17,506	114,553
• 인공어초	423,640	1,331,200
• 종묘생산시설(국립)	35,228('96)	139,725
• 어장환경정화	41,600('97~'98)	616,300
• 수산물유통시설	61,666	402,404
• 수산물가공시설	76,700	823,400
• 산지가공시설	19,100	340,7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계는 전체 어민 17만 4천명 중 15만 2천명이 가입되어 8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7,499건의 어업권을 보유하여 20만 2,278ha의 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 3,887개 자연부락에 위치하여 어촌지역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16개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이 그 다음인 366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촌계의 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더욱 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어촌계가 설립초기의 공동 모임의 의미가 탈색되고 점차 이익집단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어촌개발

1절의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계획을 참조

○ 어항개발

어항은 어촌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1, 2, 3종 및 소규모항으로 나누어져 개발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투자계획 2조 9,960억원 중 1조 4,786억원이 투자되어 전체의 49.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정어항인 1, 2, 3종항은 전체 640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1998년말 현재 415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기타 지역의 소규모항은 시군의 관리하에 있으며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점차 시설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원조성

기르는 어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양식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자원고갈을 막기에는 크게 모자라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인공어초의 투자는 1997년까지 12만 7천ha가 추진되었으며 2011년까지의 총투자 목표인 40만 6천ha의 31% 정도의 추진을 보이고 있다.

또 인공종묘생산을 통한 품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품종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특화적인 생산유도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 어장환경 정화사업

어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 수산물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어장 환경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수산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어촌이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기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가공시설

수산물 생산과 소비를 잇는 유통·가공시설은 주요한 수산업의 한 축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시설부문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생산을 위한 위생적 처리시설이 점차 보강될 계획이다.

3) 어촌의 변화전망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향후 어촌과 수산업부문에서 예측 가능한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관적 전망

- i)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지속적인 어업인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어촌의 생활기반기능이 상실되고 고령화·부녀화 경향의 심화로 수산인력구조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고령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 ii) 수입자유화와 연근해 수산자원고갈,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감소와 이에 따른 어획강도의 강화로 수산업의 위축이 현실화되고, 어촌지역의 대체 후속산업 유입이 미흡하여 어촌경제기반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iii) 어가소득의 상대적 열위가 타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 iv)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적조 등의 재해가 빈발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이어지면서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양식업을 중심으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v) 각종 불법·탈법어업의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고갈과 환경악화를 부추기고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만들어진 각종 하구둑 내수면의 오염이 심화되어 인근지역 어장의 환경에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 vi) 해안지역의 어민 독점적 이용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해양 이용의 갈등이 도출될 것이다.
- vii) 인근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많은 어장이 상실되어 수산물 생산과 어민 소득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2) 낙관적 전망

- i) 적정규모의 어업인 감소와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자원관리가 합리화되며 국민식생활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재도약하게 될 것이다.
- ii)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량 생산패턴이 퇴조하고 소량, 다품종,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동북아시아의 고품질 수산물 생산의 기지가 된다.
- iii) 어가소득 저하에 따른 어업외 소득개발이 이루어져 어촌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젊은 인력들의 어촌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다.
- iv) 국민들의 신선한 수산물 소비욕구의 증가로 어촌 현지에서의 소비패턴이 정착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어업 소득원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 v) 국민들의 바다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커져 해양·어촌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 각종 해양·어촌 관련 이벤트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vi) 어촌지역의 개발방식이 다목적·다기능화되고 지역주민, 어민, 관광객들의 수요와 수산종사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한 계획과 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 vii) 어촌개발시 재개발의 개념이 도입되어 획기적인 여건개선의 모델사업이 추진되고 어촌이 고급 휴양지로의 가능성을 보여 지역의 혼주화가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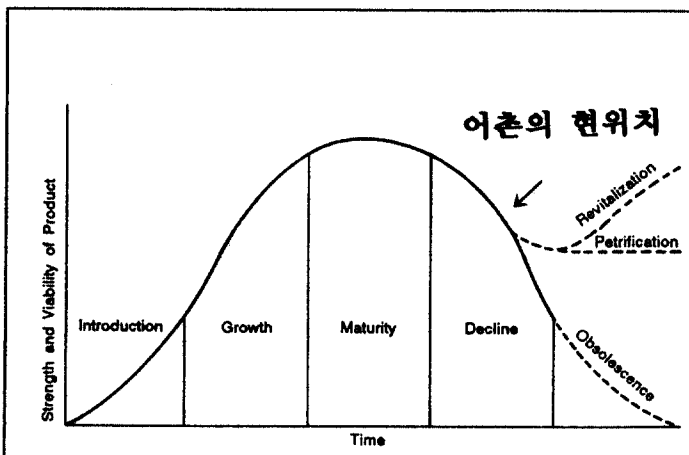
될 것이다.

- viii) 양식시설이 다양화되고 육상양식 또는 심해양식기술이 보급되어 바다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양식품종이 개발될 것이다.
- ix)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SOC 투자가 확대되어 어촌지역의 쾌적성이 개선되고, 환경보호 노력이 증대되어 어촌이 새로운 친수성 공간으로 크게 부각될 것이다.
- x) 국민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수요가 급증하여 어촌이 자연과의 교류의 장소로 활성화될 것이다.
- xi) 수산물의 안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이에 따른 위생적인 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 유통과정이 단축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증대될 것이다.
- xii) 북한지역의 새로운 어장개발협력을 통해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

현재의 어촌을 라이프사이클상의 위치로 표현하면 쇠퇴기의 중반에 위치하여 재활력에 의한 재도약, 현실 고착화, 소멸의 기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의 재활력을 위해 낙관적인 요소를 적절히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II-1〉

어촌의 라이프사이클상의 위치



4) 관광형태 및 여건변화 전망

(1) 국민관광 부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21세기에는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특히 관광은 단일산업으로는 최대산업으로 현재 세계 GDP의 10.6%, 자본투자액의 11%, 고용인구의 10.7%를 점유(1995)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로 인해 내국인의 관광은 약간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표 II-12〉 우리나라 여가발전의 단계와 특징

구분	1945	1962	1972	1982	1991
단계 개념	개념 미형성기	과도기	발아기	도약기	성장기 성숙기
소득 소비	의식주해결 시대		내구소비재의 시대	대중여가의 시대	여가개성화의 시대
여가 의식	여가부정 시대		여가인식 시대	여가긍정 시대	여가중시 시대
여가 욕구	생리적 안전욕구		기본전환욕구	사회적 욕구	지적·교양적 욕구
여가 활동	시간소일형 여가활동		재생산 시간소일형	가치창조적 여가	
여가 정책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		대중을 위한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대중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
시설 개발 유형	단순여가시설	극장, 영화관, 박물관, 민속촌, 관광단지, 국립공원, 어린이공원 실내체육관 등		복합여가시설	지역자원 활용한 최소한의 인위적 개발
주요 여가 시설 개발	명산, 대찰, 관광호텔 해수욕장, 박물관 등		국립공원, 관광지, 온천장, 테니스장	국민관광지, 콘도, 전자오락실, 스키 장, 골프장, 보트 장	지역의 생활시설, 생산시설 자연자원공간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어촌지역의 관광산업 실태와 개발과제」, 1995.

〈표 II-13〉

연도별 외래관광객 입국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1970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관광객수	173	976	1,426	2,959	3,753	3,908	4,250
(증감률)	(-)	(464)	(46)	(108)	(27)	(4)	(9)

자료: 한국관광공사.

〈표 II-14〉

우리나라 여행수지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여행수지	393	-358	-522	216	-282	-316	-1,532	-1,146	3,700(P)

자료: 〈표 II-13〉과 동일.

주: 1998년은 추정치임.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수지는 유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발생시키는 등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경기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중국·일본·러시아·대만 등의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여 이를 위한 기반시설구축에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지역의 관광에 영향을 주는 국민관광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어촌지역이 이들의 수요에 맞는 어떠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표 II-15〉

국민여행 참가자수 및 경험률

지 표	단 위	1997년	1996년	1995년
관광여행 참가자수	만명	3,161	3,269	3,131
경험률	%	87.9	90.9	92.6
숙박관광여행 참가자수	만명	2,143	2,323	2,340
경험률	%	59.6	64.6	69.2
당일관광여행 참가자수	만명	2,820	2,917	2,708
경험률	%	78.4	81.1	80.1

자료: 〈표 II-13〉과 동일.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1997년 현재 관광·여행 참여자수는 조사대상 13세 이상 국민 중 88%인 3,161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참가 회수는 6.99회로 나타났다. 여행참가자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숙박여행 참가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1998년의 경우에는 경제여건 악화로 더욱 감소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제주도의 경우 1997년 436만명 수준에서 325만명으로 25%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도 10% 이상의 관광객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에 소비되는 경비는 1997년 현재 1인당 25만 3천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당분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 관광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가용의 지속적 보급 증가로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경제적인 관광문화가 정착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총 관광비용은 9조원을 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수산업 부가가치인 2조 5천억원의 3.6배 정도이다. 특히 어촌지역 관광과 관련이 높은 당일 관광의 비용은 5조 2천억원 규모로 수산업 부가가치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여행시 교통수단을 보면 자가용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당일 관광의 경우 전체의 70% 정도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맞는 기반시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16〉

국민관광 여행경비 변화

지 표	단 위	1997년	1996년	1995년
관광여행비용(1인당 연간)	원	253,610	252,650	294,600
총비용(총량)	백만원	9,120,474	9,086,308	9,960,131
숙박관광비용(1인당 연간)	원	109,850	118,420	147,810
총비용(총량)	백만원	3,950,647	4,258,858	4,997,308
당일관광비용(1인당 연간)	원	143,760	134,230	146,790
총비용(총량)	백만원	5,170,187	4,827,449	4,962,823

자료 : 〈표 II-13〉과 동일.

〈표 II-17〉

여행시 교통수단 비교

단위: %

구 분	숙박관광여행			당일관광여행		
	1997	1996	1995	1997	1996	1995
자가용	54.9	50.8	46.4	68.2	63.7	59.2
관광버스	8.5	9.2	8.9	4.1	6.0	6.2
열차	7.5	8.6	10.4	4.7	4.0	4.0
고속버스	6.9	6.8	9.4	1.5	2.2	2.6
비행기	6.0	8.4	6.4	—	—	—
승합차	5.0	3.9	4.5	4.6	4.2	4.7
일반버스	4.8	4.3	6.0	10.0	11.3	14.5
전세버스	3.6	4.9	4.2	2.0	3.0	2.4
기타	2.8	3.1	3.8	4.9	5.6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II-13〉과 동일.

여행의 목적지별 활동을 보면 당일 여행시에는 자연·명승 등 풍경관람이 가장 높고 유홍·오락, 낚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여행시에는 자연·풍경관람, 유홍·오락, 수영·해수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으로 보아 어촌과 해양관광의 수요는 매우 높은 상태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18〉

여행시 목적지 활동

단위: %

구 분	숙박관광여행			당일관광여행		
	1997	1996	1995	1997	1996	1995
자연·명승 등 풍경	30.8	47.7	30.3	32.4	37.2	32.3
유홍·오락	18.6	12.2	18.2	24.9	21.0	24.0
수영·해수욕	11.9	9.2	11.5	—	—	—
낚시	—	—	—	9.9	5.3	6.88
고적/사적지/박물관	9.1	2.8	9.4	7.8	8.4	7.9
등산·캠핑 등	7.5	7.2	9.3	6.1	5.3	10.1
온천·휴양	—	—	—	7.0	7.3	6.8
기타	22.1	21.9	21.3	11.9	12.4	1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II-13〉과 동일.

여행시기를 보면 주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지만 주중 활동도 30%에 이르러 연중 관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9〉

여행시기 비교

단위: %

구 분	숙 박 관 광 여 행			당 일 관 광 여 행		
	1997	1996	1995	1997	1996	1995
주 중	31.5	28.6	27.3	29.5	27.2	26.1
주 말	33.0	31.6	33.0	58.2	60.0	57.4
휴가/방학	29.3	31.4	30.4	6.6	5.7	8.3
신정/구정	2.4	2.7	2.3	0.2	0.3	0.3
추 석	1.2	1.7	1.8	0.3	0.1	0.2
연휴, 공휴일	2.6	4.1	5.3	5.2	6.6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II-13〉과 동일.

〈표 II-20〉

여행 동반자 형태 변화

단위: %

구 분	숙 박 관 광 여 행			당 일 관 광 여 행		
	1997	1996	1995	1997	1996	1995
가족동반	43.5	44.7	41.6	47.4	46.6	44.0
친구/친지	35.4	33.8	38.0	37.6	38.2	41.1
학교 또는 학교단체	7.6	8.0	7.0	3.5	4.3	3.1
직장 또는 직장단체	4.9	3.5	3.0	4.8	2.1	2.8
기타 유관단체 지역사회	2.8	3.3	3.9	2.7	4.6	4.6
혼자서	4.0	4.1	5.4	2.7	1.8	3.0
종교단체	1.2	1.6	0.2	1.1	1.1	1.1
여행사 모집 단체	0.1	0.3	1.0	0.2	0.1	0.1
기 타	0.5	0.7	0.0	0.1	1.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II-13〉과 동일.

여행 동반자 형태를 보면 숙박·당일 모두 가족동반과 직장을 중심으로 한 여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타 형태에서는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사회구조가 가족과 직장으로 단순화되면서 여가형태도 이와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국내 관광여건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의 관광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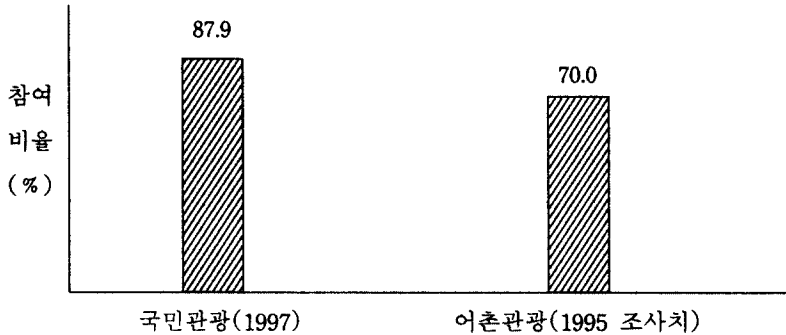
- i) 경제위기를 맞아 건전하고 저렴한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특히 자연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형태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해양관광과 생태관광, 체험 관광이 새로운 관광분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 ii) 환율저하에 따른 해외 관광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전통문화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iii) 환경 친화적 관광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대규모 위락시설 위주의 관광개발은 자금이나 토지문제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이다.
- iv) 여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여가활용, 개인적 여가활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가족단위의 관광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 v) 차량보급 증가로 이동성이 크게 개선되고 자가용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이를 고려하여 시설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 vi)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지역별 독특한 전통, 산업, 행사 등이 계승발전되어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반 정비, 홍보 등의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어촌관광 부문

어촌관광부문은 별도의 통계자료가 추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199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과 국민관광조사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0.0%가 어촌관광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횟수는 평균 2회로 나타났다.

〈그림 II-2〉 국민관광과 어촌관광 참여율 비교



어촌관광시장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 조사된 내용과 국민관광조사치를 이용하여 비교·검토한다.

전체 국민관광참여인·횟수(관광참여자×참여횟수, 3,161만명×6.99회)는 220,954천인·회로 추산되었으며, 어촌관광참여인·횟수(2,170만명×2회)는 43,400천인·회로 추산되어 전체 국민관광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6%로 추정된다.¹⁾ 이 비율로써 전체 어촌관광시장 규모를 추산하면 약 1조 8천억원이 계산된다.

〈표 II-21〉 어촌관광규모 현황 추정

구 분	참여자수	참여횟수	총참여인·회
국민관광(A)	3,161만명 (13세이상인구의 87.9% 경험)	6.99회	220,954천인·회
어촌관광(B)	2,170만명 (19세이상인구의 70.0%경험)	2.0회	43,400천인·회
B/A(%)	0.69	0.29	19.5

또 농경연의 설문조사결과로는 1인 1회 어촌관광시 지출액은 약 51,000원(숙박비, 교통비, 음식비 포함)으로 추산되었으므로, 어촌관광 총시장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계산된다.

1) 국민관광설문조사는 13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어촌관광 설문조사는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이 규모는 수산업 총 부가가치 2조 5천억원의 72~88%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미 어촌소득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중요한 어업외소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어업소득중 서비스업과 사업외소득 비중은 전체 어가소득의 14%(285만 7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이용하여 이 부분의 총 규모를 추정하면 2,900억원(가구수×소득) 정도로 예상된다. 이것은 앞에서 추정된 어촌관광시장규모의 13~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개발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어촌관광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미래에는 중요한 어업외소득원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사대상의 오차, 중복 측정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규모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촌관광 분야가 매우 중요한 어촌의 소득원임은 부인할 수 없다.

〈표 II-22〉

어촌관광 시장규모 추정

구 분	산출근거	추정결과
국민관광 비율법	국민관광 총비용 91,205억원×0.195	17,784억원
어촌관광비용 추정법	1인1회어촌관광비용 51,000원×43,400천인·회	22,134억원

〈표 II-23〉

어촌관광 여행목적

단위 : %

관 광 목 적	연 령 별 참 여 율				
	20~30대	30~40대	40대 이상	불 명	계
해 양 스포츠 · 레저	54.6	58.7	45.6	65.7	56.3
자 연 경 관 감 상	36.4	56.2	49.1	51.4	52.7
해 산 물 요 리	36.7	40.5	49.1	31.4	41.1
기분 전환점드라이브	72.7	40.5	31.6	18.4	36.6
조 용 한 휴 식	18.2	20.7	29.8	13.2	21.9
수 산 물 채 취	9.1	24.8	8.8	11.4	21.4
문 화 유 적 탐 방	9.1	24.8	6.6	10.5	17.9
기 타	18.2	5.0	8.8	2.9	6.3

자료 :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주 : 참여율은 복수 응답률임.

어촌 관광의 목적으로는 해양스포츠·레저가 가장 많았으며 자연감상, 음식, 기분전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관광의 여행목적은 보면 특정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비교적 체류시간을 길게 예상하고 방문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체류시간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어촌지역 개발사업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촌관광의 참여희망을 조사한 결과 1995년의 70.0% 참여율이 76.3% 정도로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촌관광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를 수용키 위한 세련된 기반시설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관광여행의 희망시기는 계절별로 여름이 가장 높은 55.1%였고 가을이 12.2%였다. 그러나 계절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34.7%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보급 증가로 접근성과 접근속도가 개선되었으며, 여건이 좀더 개선되면 연중 관광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24〉

어촌관광 여행시기

단위 : %

구 분	연 령 별 의 견				
	20~30대	30~40대	40대 이상	불 명	계
봄	—	8.8	5.1	—	6.9
여 름	50.0	53.4	62.8	22.2	55.1
가 을	10.0	12.2	14.1	—	12.2
겨 울	—	6.1	7.7	—	6.1
계절과 무관	50.0	36.5	28.2	44.4	34.7

자료 및 주 : 〈표 II-23〉과 동일.

또 어촌지역에서 경험하고 싶은 관광활동에 대한 설문결과로는 해양스포츠 및 낚시가 58.4%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탐방, 휴식, 음식체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5〉

어촌관광 희망활동

단위 : %

구 분	1995년도	향후 희망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	56.3	34.7
(바다낚시)	—	23.7
자연경관 감상	52.7	52.7
문화유적 탐방	17.9	—
어촌생활문화체험	—	23.3
기분전환 겸 드라이브	36.6	—
해산물 요리 즐김	41.1	40.4
수산물 채취	21.4	23.7
조용한 휴식	21.9	43.7
기 타	6.3	1.6
참여자수(%)	224(70.0)	245(76.5)

자료 및 주 : 〈표 II-23〉과 동일.

3. 어촌의 새로운 미래상과 기회

1) 어촌의 미래상

앞절에서 국내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와 어촌·수산업의 여건변화, 관광분야의 여건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어촌을 둘러싼 주요한 요인들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외에 많은 부분이 어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석의 범위를 좁혀 어촌의 미래상을 2000년대 초반 어촌의 미래상을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에서 제시코자 한다.

첫째, 어촌은 여전히 어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존재할 것이며, 수산업 생산의 배후지로서 기능을 해나갈 것이다. 인근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화되는 지역과 대규모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어촌지역이 나오겠지만 대다수 어촌지역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신선한 수산물의 현지 공급기지로써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수산물의 어촌 현지에서의 소비패턴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 방안이 각종 사업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다.

셋째, 어촌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들이 지원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매력있는 주거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다섯째, 어장환경정비와 각종 육역의 정비를 통해 어촌의 쾌적성이 향상되어 갈 것이며 어촌의 생태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어촌의 산업적, 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이 등장하고 공동어장의 다목적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일곱째,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을 통한 시범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도시민과 어민의 혼주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덟째, 어촌경관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미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계획시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홉째, 수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관광산업이 유력하게 등장할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젊은 인력의 유입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혼주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열번째, 어민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장비의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고령 어업인을 위한 어업기반시설이 도입될 것이며, 어업후계인력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계층으로 점차 대체되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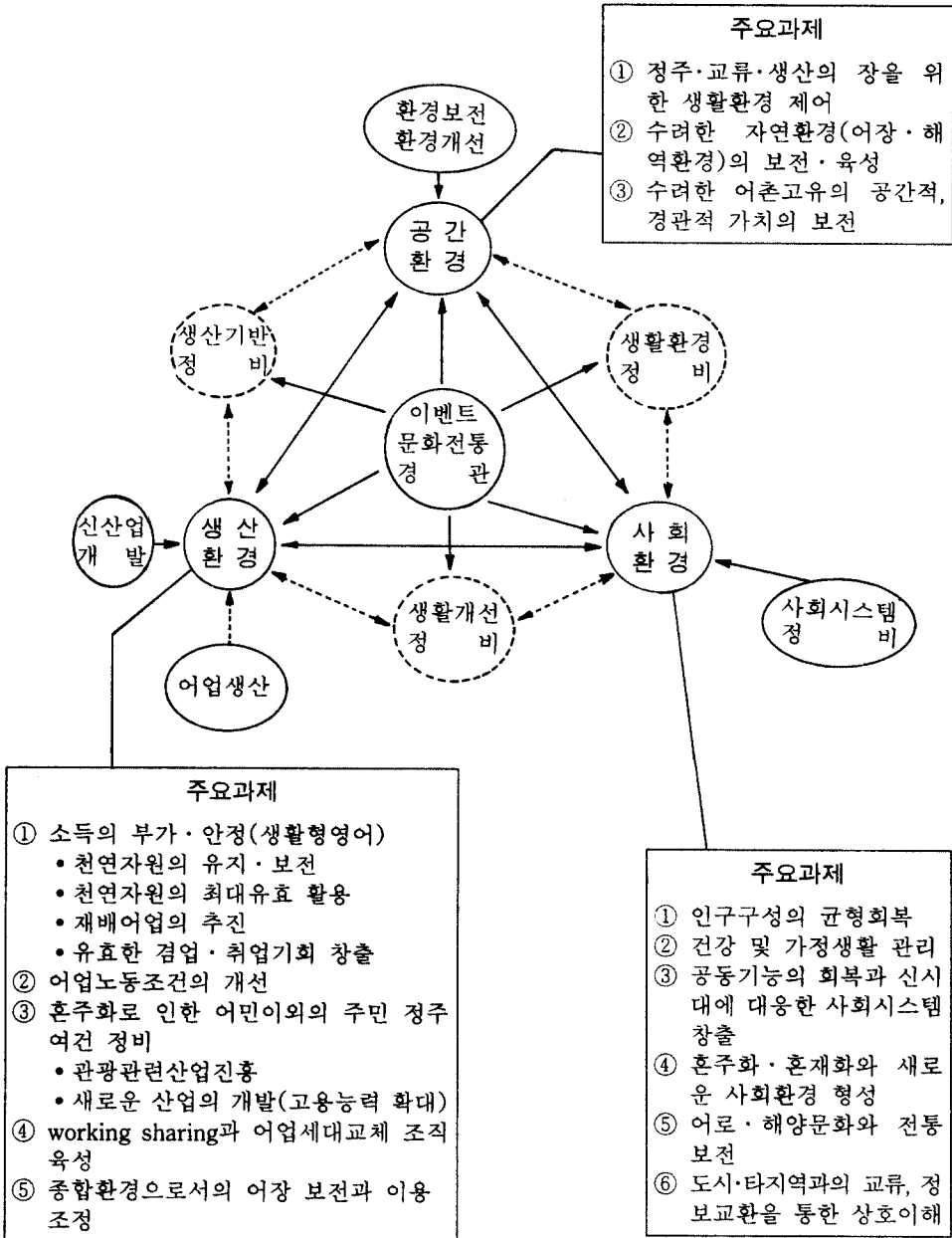
2) 새로운 기회를 위한 기반구축

이러한 어촌을 둘러싼 변화는 어촌의 새로운 정비와 기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에 의한 자본축적이나 다른 산업의 효과적 개발이 어려운 어촌지역은 수산업과 어촌문화,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이어주는 새로운 공간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공간을 ‘어촌친수공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어촌친수공간은 단순히 물과 가까운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친수산업적이며 친어민적, 친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래에 유입될 관광객들에게 감동

〈그림 II-3〉

어촌지역의 미래상에 따른 개발 비전



과 편의를 동시에 주고 현재의 어촌공간을 효율적, 다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어촌에서의 친수기회 제공’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향후에도 어촌지역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국가재정상 현재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특히 소득증대부문의 기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업생산과 친해양성 관광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 바다에로의 접근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 시설, 어민과 환경·문화가 조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설 등의 개념을 가진 새로운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第3章 漁村親水空間의 概念과 類型

1. 어촌친수공간의 개념

1) 친수공간(Waterfront)의 개념

친수공간이라는 말은 어원의 역사적·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친수공간이라 함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육역과 수역을 포함한 장소를 의미한다.

육지에서 볼 때 육역과 수역이 만나는 장소를 수변공간이라 하고, 영어에서의 동의어인 워터프론트(waterfront)를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水前(空間)이 된다. 이 문제는 똑같은 장소를 놓고 어느 쪽에서 바라 보느냐 하는 대수롭지 않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안과 밖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을 만큼 사고의 틀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친수공간은 육역과 수역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에서 육역과 수역의 상이한 조건을 연계시키는 지역으로서 제3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육역과 수역이 교차되는 공간인 친수공간은 만남, 모임, 헤어짐 등 각종 추억과 체험이 집적되어 기억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 쓰여지는 아주 독특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다. 또한 생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수변부는 이질적으로 수역과 육역의 접경지대로 구성되는 까닭에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고 많은 야생종이 먹이와 은폐물을 찾아 모여드는 주변 효과를 갖게 된다.

육역과 수역이 교호되는 공간인 친수공간은 단순히 수변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친수공간을 포함한 임해부를 재개발함으로써 지역환경정비와 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구조 및 문화구조를 재구축하는 개념이다.

친수공간은 수변공간이라는 지리적인 의미와 함께 ‘물’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생활의 활력을 주며 인공시설과 더불어 자연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

수공간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수공간은 ‘녹지기능뿐만 아니라 녹지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기능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으로, 1차적인 수변활동뿐만 아니라 여타 활동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공업·유통·어업 등 생산적인 행위와 상업·업무·주거·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친수공간의 개념을 물리적인 영역으로서 뚜렷이 한정하는 것은 법제도에 의해 개발·보전을 위해 규제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Coastal Zone Management Act(연안역 관리법)이나 CZM Plan(연안역 관리계획)에서 연안역에 관하여 州의 실정에 따라 법제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수공간은 수역측에서는 수제선에서 해역까지, 육역측은 수제선 30m에서 8km에 이르기까지 혹은 간선도로 등과 같은 시설까지 라고 하는 대략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해안법에서는 해안보전구역을 친수공간으로 생각할 경우 수제선에서 육역, 해역 모두 50m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역 개념을 수역으로는 12해리(22km), 육역으로는 500m(항만법상 지정항만, 어항법상 제1·3종어항,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1km)까지로 연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체의 연안역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한 연안 관리법에서는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는 특수 환경지역으로 해변, 갯벌, 만, 삼각주, 5km² 이하인 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연안역개념을 친수공간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렇듯 수치에 의한 친수공간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이며 설정하지 않더라도 계획에 차질을 주지는 않지만 법제도상에서 어떤 구역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학계·연구관련분야에서는 친수공간을 이처럼 물리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수령에서 수제선까지 혹은 만과 같이 하나의 해수괴에 영향을 미치는 육수의 유입범위, 육역에서의 시계의 한계역 등과 같이 광역적인 것에서부터 육지 부근의 얕은 바다부분이라는 즉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학문분야마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2) 어촌친수공간(Fishing Village Waterfront)의 개념 및 개발모형

어촌친수공간은 광의의 의미로 “어촌지역에서 인간과 바다가 공유하는 모든 공간, 친수산업적 공간, 친어민적 공간, 친해양환경적 공간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나 기회 등을 포함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

위의 개념을 협의의 의미로 구체화 하면 ‘어촌지역에서 친수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과 그 기반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개념화 하고 어촌지역의 친수를 위한 기반정비로서 의미를 제한한다.

어촌친수시설은 <표 III-1>에서 보듯이 조망, 갯바위 낚시, 산책로, 해수욕장, 해수풀장, 해수탕, 바지선 낚시, 보트놀이, 체험어장,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식당 등 자연적 및 인위적인 여러가지 친수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그러한 친수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공간을 어촌친수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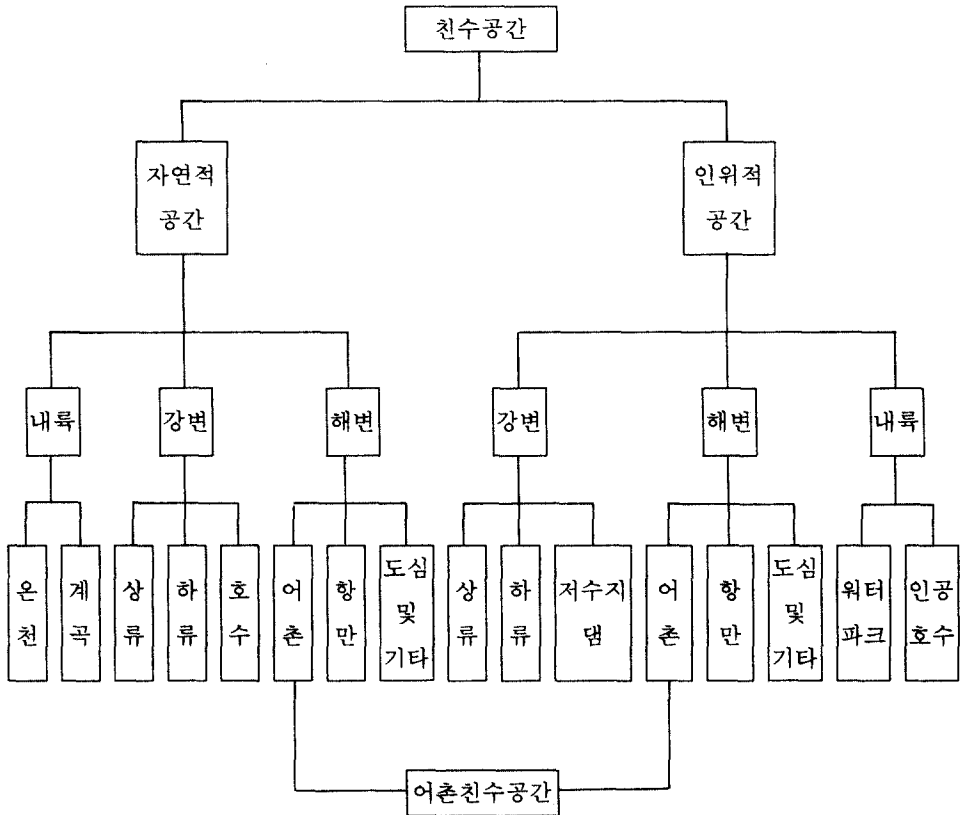
<표 III-1>

수변 입지별 친수활동 형태

구 분	친수활동 사례
하천상류	보팅, 제트스키, 요트, 수상스키, 오토캠프, 카누, 하이킹, 야영, 불꽃놀이, 조정장(rowing), 뗏목타기, 바베큐, 캠프파이어, 등(燈) 홀려보내기, 바자회 등의 이벤트, 연날리기, 운동놀이 등
하천하류	피크닉, 야유회, 야영, 드라이빙, 유보도 등
호수	야유회, 피크닉, 야영 등
어촌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보팅, 갯바위 낚시·유어선 낚시, 수영, 수상스키, 유람선, 산책로등
항만	유람선, 해양박람회, 수족관, 박물관, 인공섬, 마리나, 보도 등
저수지·댐	유보도, 드라이빙, 야유회, 피크닉, 야영 등
인공어촌	해수탕, 해수풀장, 인공해수욕장, 체험어장, 해중공원, 바지선 낚시, 낚시공원, 유람선, 계단식 호안, 휴게실, 전망탑, 산책로 등
인공항만	유람선, 해양박람회, 수족관, 박물관, 인공섬, 마리나, 유보도 등
인공도심,기타	수족관, 박물관, 인공해수풀장, 민속관광촌, 각종 이벤트 개발 등

즉, 어촌친수공간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어촌·어항시설내 혹은 어촌 인접지역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III-1>에서와 같이 친수공간은 여러가지 공간적 범위를 가지나 어촌친수공간은 해변의 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친수공간의 범주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어촌친수공간의 공간적 범위



어촌친수공간은 일반적으로 연안역이나 친수공간 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구조적 측면에서 다음 <표 III-2>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아진다.

〈표 III-2〉

어촌친수공간의 구조적 위치

구 분	계획차원	권역차원	기능차원
연안역	국토계획	국토·지방	거시적 기능배치
친수공간	도시계획	지방·도시지구	주거, 업무, 관광, 상업, 교통
어촌 친수공간	어항 등 시설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어항지구, 매립지구, 공유수면, 도서지역	상업, 관광, 위락, 교통, 여가, 수산업 등

3) 어촌친수공간의 특징

어촌친수공간은 위치가 어촌지역에 있다는 점이 여타 지역의 친수공간과 크게 대별된다. 이러한 위치의 차이는 곧 개발의 과정이 달라짐을 의미하며 주민의 정주공간과 산업활동공간, 관광공간이 결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i) 주거공간, 산업활동공간, 관광활동공간의 다기능적 이용
- ii) 환경파괴적이지 아닌 친환경적 개발이며 대규모 인공공간 건설은 지양하고 자연공간의 최대한 효율적 이용
- iii) 상업시설의 경우 지역 수산업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주안점으로 개발
- iv) 기존의 수산업적 기반의 붕괴가 아닌 공존의 개념으로 개발
- v) 산업활동 자체의 관광자원화
- vi) 대규모 투자유발 사업이 아닌 소규모 기반정비를 통한 공간 개발
- vii) 수산업의 재활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입
- viii) 어촌의 생활환경개선 효과가 충족되도록 개발 추진
- ix) 기존의 어촌투자 재원을 이용한 투자 가능
- x) 어촌지역 자생조직을 통한 운영과 관리를 고려
- xi) 단일지역 집중개발이 아닌 권역의 저밀도 개발을 통한 다양한 공간활용 방안 도출 가능
- xii) 실외공간 위주의 개발로 계절적 요인이 강함

- xiii) 수산물 생산시기에 따른 공간이용의 시기성
- xiv) 지역고유 문화유산의 재발견을 통한 어촌문화 제고
- xv) 특정 관광행태를 위한 시설이 아닌 지역 인프라적인 공간 제공
- xvi) 수요에 따른 공급적 개발과 더불어 수요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개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개발효과의 흐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촌지역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이용한 지역개발
- 지역개발을 통한 어촌의 활성화
- 어촌 활성화에 의한 소득원 개발
- 소득개발을 통한 정주요건 충족
- 정주요건 충족을 통한 지역 재개발
- 지역 재개발을 기초로 한 수산업의 부가가치 실현

그러나 어촌의 개발은 대부분 지형적인 이유로 토지공급의 제한이라는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공유수면의 이용을 불가피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자인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다음의 선행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i)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ii) 계획적 개발로 환경폐해 최소화
- iii) 소규모 투자 위주의 사업 수행
- iv)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기법의 수립

2. 어촌친수공간 도입가능 시설 및 분야

1) 어촌친수공간의 도입가능 시설

어촌친수공간에는 특별한 도입 규제시설을 둘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량의 대기·수질·토양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설과 지역의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규모의 시설, 해풍에 심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어촌친수공간 시설을 살펴본다.

i) 산업적 이용

- 어항,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계류장 수산가공시설, 수산유통시설
- 마리나, 낚시터, 낚시선, 크루즈, 해수욕장, 해수수영장, 해수목욕탕, 체험어장, 스쿠버 등 관광관련시설
- 풍력발전기, 오수정화시설 등 기반산업시설
- 기념품제작, 특산물 제작 등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 관련시설
- 선박운항 등 교통관련시설

ii) 상업적 이용

- 식당, 레스토랑, 수산물판매장, 활어횃집 등 음식점
- 기념품 판매, 낚시용구판매점 및 기타 소모품 판매시설 상가
- 관련산업의 사무실 및 소규모 숙박시설
- 복합건물

iii) 주거용 이용

- 휴양주거지 개발 및 콘도 등 준주거시설
- 지역 어민의 주거용 시설
- 피난어선원의 간이 주거시설

iv) 친수공원

- 수중공원, 해중전망대 등 인공공원시설
- 몽돌 해변, 갯바위 전망대 등 자원이용공원시설
- 녹지공간
- 벤취, 음용수대, 화장실, 조명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

v) 교통도로

- 어항연결도로, 연육도로, 가교, 해안도로, 호안도로, 마을우회도로 등 도로시설

vi) 주차시설

- 시설지역과 해안의 완충지역 공간을 활용

vii) 공공접근시설

-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깅로 등 접근 편의시설
- 지역소개 안내판,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 호안 등 해안보전시설

viii) 전망대 및 전망로

- 산업적 이용지역의 접근이 용이치 못한 경우 일부공간을 이용하여 조성

ix) 역사문화적 이용

- 인근의 유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하여 자원활용

x) 예술공간 이용

- 조각 등의 상설전시를 통한 공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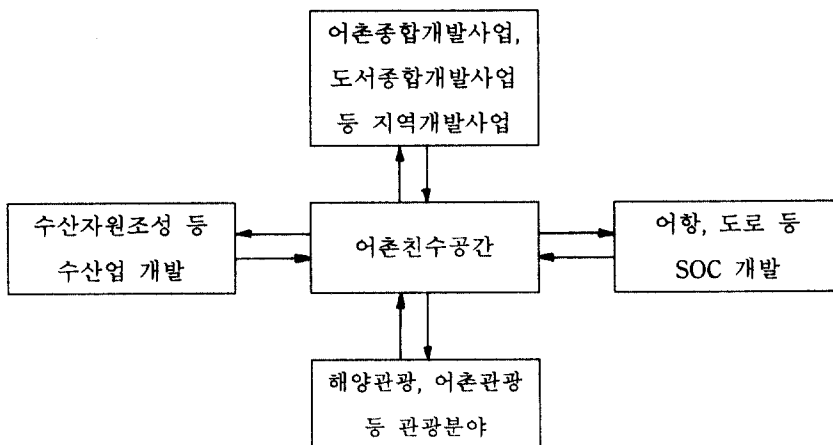
xi) 행사와 축제

- 항구의 날, 풍어제, 수영대회, 서핑대회, 수산물축제 등을 통한 공간활용

2) 어촌친수공간 국내 도입가능 사업분야

〈그림 III-2〉에서와 같이 어촌친수공간 개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여러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림 III-2〉 어촌친수공간개발 도입가능 사업분야



우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 개발사업시 이러한 친수공간 개념이 포함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가장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기 쉬우며 사업대상 범위가 권역개발 개념으로 넓기 때문에 어촌친수공간의 특징인 저밀도 권역개발 의미와도 부합되는 접근방식이다.

또 하나는 어항개발이나 해안도로 등 어촌지역 SOC 사업시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사업의 범위는 좁으나 지역에 따라 민간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며 권역의 중심적인 친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다.

세번째는 어촌의 경제기반인 수산업을 이용한 공간개발방안이다. 각종 종패나 치패, 치어 방류사업을 위한 공간이나 이들의 재배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접근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네번째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시 친수공간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해수욕장이나 해양공원 등의 개발사업에 친수성을 강화시키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3. 친수공간의 개발기술

1) 어촌친수공간의 개발기술의 특징

친수공간구상 실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은 종래 일반적으로 사용된 표준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어항시설, 매립 등에 관한 하드웨어 기술개념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 이는 기술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조합방법이나 시점을 바꾸어 사물을 보는 방법이 중요해진 것이다. 즉, 경제 일변도로 발전해온 관점의 사회를 사람이나 생물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하며 현지여건과 부합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떻게 기술을 도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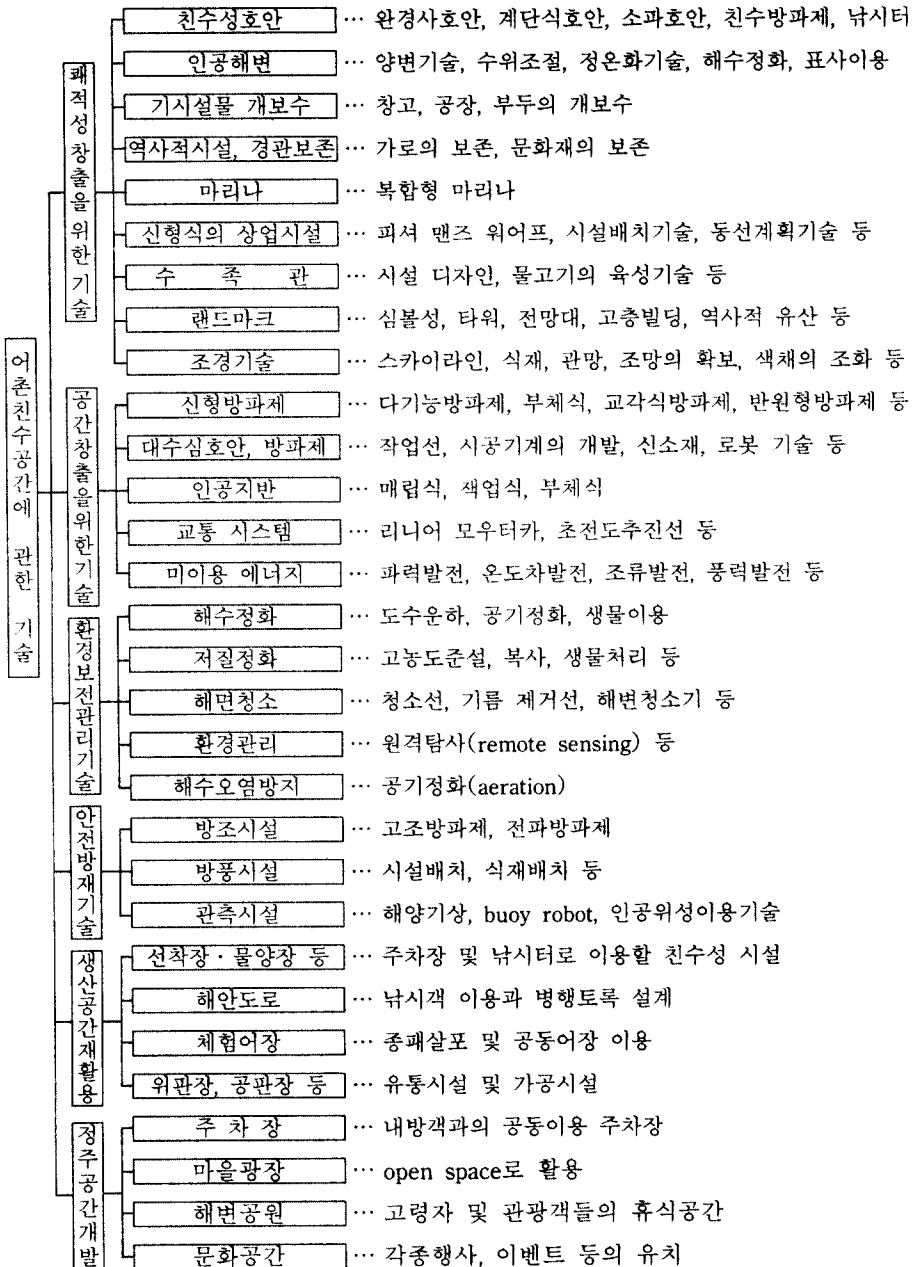
사람들이 물과 접촉하고, 바다를 느끼며, 수변에 모여서 교류가 시작되는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경경관, 동선 등의 심리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친수공간의 최대 자원인 수질이나 해양생물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다 더 좋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친수공간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본이

<그림 III-3>

어촌친수공간과 관련된 기술분야



되는 것은 첫째로 사람 마음의 풍요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쾌적성의 창출기술, 둘째는 사회기반시설(infra) 정비에 관한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공간창출을 위한 기술, 셋째는 양질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창출 및 유지보전을 위한 기술, 넷째는 시설을 포함한 안전방재에 관한 기술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어촌친수공간은 이미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의 공통적인 네 가지 기술에 부가하여 생산기반시설 건설기술과 연계된 공간창출 기술이며 현지의 거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친수공간의 개발기술현황

(1) 기술개발의 현황

친수공간에 관한 대표적 기술개발현황을 보면 <표 III-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표에 있는 기술과제는 최근 주목되고 있는 신기술을 중심으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단계나 일부 실용화의 단계에 있는 기술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기술도 고도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개량 및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수공간 개발에 관한 기술은 하드웨어 기술분야와 소프트웨어 기술분야로 크게 구분되지만 특히 쾌적성창출, 경관창조, 환경평가, 사업경영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개발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인 기술이 많이 있다.

현재의 기술개발현황을 사업수행의 단계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조사단계에서는 앞으로 입지가 예상되는 바다의 대수심, 대파랑 해역에 대한 기상해상조사 예측기술의 개발이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CAD²⁾를 이용한 구상내용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의 계획검토나 사업에 관한 각종의 영향인자를 조합한 시뮬레이션 방법의 개발 등 최적사업화 예측방법의 개발이 있다.

설계단계에는 연약지반의 침하대책이나 내진기술개발, 환경영향평가 방법의 개발, 정체구조물, 대수심구조물, 미이용 에너지 시설 등 새로운 형식의 시설이

2) CAD(Computer-Aided Design) : 컴퓨터에 의한 설계

〈표 III-3〉

어촌친수공간 기술개발의 현황

기술과제	요구기술										비고									
	조사·해석·예측기술	자파연악환시경시스템	CAE설계	경제적파사입화파의와예측법	환경영향예측방법	동적구조해석기술	수변활용기술	해수교본석기술	고품질재료	신소재	고정도측량	대수심·대파랑시공	품질관리시스템	자시동스튜관리	환시경모니터링	방재·피난시스템				
친수공간에 관한 기술	쾌적성	친수호안제방	C	C	B	A	B	B	A	-	A	-	A	O	O	-	환경사호안, 친수방파제			
	기술물개수	-	-	B	A	B	-	B	-	A	-	-	-	2	O	-	창고, 공장, 부두 등			
	역사시설, 경관보전	-	-	B	A	B	-	B	-	-	-	-	-	O	O	A	가로, 문화재의 보존			
	마리나	C	C	B	B	B	C	B	B	-	A	-	A	A	A	B	복합형 마리나			
	상업시설	-	-	B	B	B	C	B	-	-	-	-	-	-	B	C	파서랜즈 워어프			
	수족관	-	-	B	B	B	C	B	-	-	B	-	-	B	B	C	시설디자인, 어류육성			
	랜드 마크	-	-	B	A	B	C	B	-	-	-	-	-	-	-	-	타워, 전망대 등			
	인공해변	C	B	B	A	B	-	B	-	A	-	-	A	A	C	C	조성기술, 수위조절 등			
	조경기술	B	B	B	A	B	-	B	-	-	-	-	O	-	-	-	스카이라인의 통일 등			
	공위	신형방파제	B	B	A	B	B	A	-	A	A	-	B	A	O	-	A	다기능방파제 등		
	간한	대수심방파제	B	C	A	B	B	A	-	B	B	A	B	A	O	-	A	시공기술, 신소재의 개발		
	출을	인공지반	B	C	A	B	B	C	B	-	B	B	-	B	-	-	-	부채계류시설		
	간	신교통시스템	B	B	A	B	A	C	-	B	A	-	-	B	B	B	리니어 모터카 등			
	에	미이용에너지	B	B	A	B	A	B	-	A	B	-	A	B	B	B	발열이용, 태양광발전			
	관	해수정화	B	B	A	A	B	-	B	-	-	-	A	B	-	-	공기정화			
기술	한	저질정화	A	B	A	A	B	-	A	-	-	B	-	O	A	-	A	고농도준설, 복사 등		
	관	해면청소	B	B	A	A	A	-	-	-	-	-	-	O	A	-	A	청소선, 기름 제거선 등		
	한	환경관리	B	B	B	A	C	-	B	-	-	-	-	B	C	-	원격탐사 등			
	기술	해수오염방지	B	B	B	A	A	-	B	-	A	-	-	O	A	-	A	정화기술 등		
	안	방조시설	B	B	B	B	C	C	A	-	A	A	A	A	A	A	A	해일, 방파제 등		
	전	방파시설	C	C	B	B	C	C	B	-	A	A	-	A	A	B	B	시설배치, 식재배치		
	방	관측시설	C	C	B	B	C	C	-	A	-	A	B	A	-	B	B	해양기상, buoy robot		
	기	선착장, 물양장	C	-	C	A	O	C	A	A	O	-	A	O	O	-	-	생산공간 이용		
	생	해안도로	C	-	C	A	O	C	A	-	A	B	-	-	O	O	-	낚시터 및 휴식		
	재	체험어장	B	O	O	O	O	O	A	-	B	A	-	O	O	O	O	종패살포, 어장관리		
	산	위판장, 공판장	C	-	C	C	C	C	O	-	A	B	-	A	O	O	-	경매참여, 구매 등		
	활	주차장	C	-	C	C	A	C	A	-	C	B	-	-	B	-	-	공동이용관리		
	공	마을광장	O	-	O	O	A	-	A	-	-	-	-	O	-	-	-	적정 설치규모 추정		
	용	해변공원	B	-	A	B	A	-	A	-	-	O	-	-	O	O	-	시설배치 및 토지조성		
	간	문화공간	O	-	C	A	B	C	A	-	C	C	-	-	C	-	-	전시장, 이벤트장		

자료: 김광두 譯, 21세기 Waterfront, 1998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 1)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의 약어

2) O: 미개발단계, A: 연구개발단계, B: 일부 실용화단계, C: 실용화 보급단계

나 구조물 설계기술의 개발, 또 Aramid(애러미드)³⁾ 섬유, 플라스틱 고강도 콘크리트 등의 신소재, 신재료의 개발, 나아가 수변의 풍요함을 구현화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설계방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공단계에서는 건설비용의 절감과 문제시 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작업 로봇이나 대수심, 대파랑의 위험한 자연환경하에서 대량 급속시공을 가능케 하는 작업기계와 작업선의 개발 및 조립식화, Precast(프리캐스트)⁴⁾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쾌적한 생활공간창조를 위한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해소, 해일, 지진, 수재 등에 대한 도시의 방재, 피난 시스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 어촌친수공간 기술개발의 과제

현재의 기술수준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어촌친수공간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과제를 고려해 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심이 될 것이다.

-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창출에 관한 기술개발
 - 경관설계기술의 확립
 - 관측체제의 강화(해일, 해소예측)
 - 신형식 해양구조물 등 기술기준의 정비
- 건설비용의 절감에 관한 기술개발
 - 다기능 형식구조물의 개발
 - 신소재의 적용, 신재료의 개발
 - 사업채산성의 연구
- 시공의 자동화, 효율화, 고정도화에 관한 기술개발
 - Robot화의 추진
 - 작업선, 작업기계의 개발(대수심, 대파랑 대응)
 - 정보화 시공의 확립

3) Aramid(애러미드) : 방향성의 합성 폴리아미드(내열성 섬유제품에 사용됨)

4) 프리캐스트(precast) : 조립식 재료로 미리 형성하는 것

○해양환경유지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 해양정화기술
- 해저오니, 부유유의 제거기술
- 친수성,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개발
- 환경영향 예측방법의 확립

○생산공간의 재활용 기술개발

- 선착장이나 물양장의 친수성 강화 기술
- 해안도로 등 기반시설의 친수성 강화 기술
- 체험어장 등 생태관광을 위한 관리 기술
- 위판장, 공판장 등의 체험공간 개발기술

○정주공간 개발기술

- 전망기능을 가진 주차장 등 공간이용 기술
- open space로 활용할 마을광장 등의 규모와 도입가능 검토
- 여유부지를 활용한 해변공원 개발
- 행사 및 이벤트를 유치할 문화공간 도입

친수공간 개발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사람 마음의 여유나 풍요함을 되돌리기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이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개발은 지금보다 한층 더 중요하게 되며,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서도 쾌적성 창출에 관한 기술은 인간의 감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공학적인 분석과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의 다면적인 기술의 접근이 필요해 지고 있다.

또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에는 거액의 개발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으나, 사업주체는 각 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어민들의 경영능력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첫째로 민·학·관 각각의 역할분담 아래 독립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서로의 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의 기술개발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의 여러 사람과 공동의 연구나 인재의 확보 및 교류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싹을 가시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민간참가의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발에서 실용화까지에 장기간을 요하는 기술이나 거액의 개발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원책 강화가 필요해진다.

셋째로 지역수준에 맞는 통제 가능한 시설 위주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며 특정지역에 맞는 소규모 개발기술의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기술의 수준을 높혀 나가기 위하여는 그 유지와 전승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개발연구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친수공간의 사회적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어촌친수공간의 유형

어촌친수공간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촌의 위치, 친수공간의 기능, 도입시설분류, 중심기능 시설의 종류, 투자재원, 관리체제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1) 어촌의 위치에 의한 분류

어촌의 위치에 의한 분류방식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나누어지는 분류방식이다. 입지에 따라 도시인근, 관광위락지 인근, 명승지인근, 기타 군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도입시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능에 따른 분류

어촌친수공간에 대한 유형은 친수공간의 기능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경관형, 경관위락형, 근린형, 이용형 등이다.

경관형은 어선의 접안 및 계류 또는 해상수송기관의 출발·도착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배후지에는 어항관련시설 및 상업업무지역이 배후에 위치하여 있어 실제로 바다를 이용한 친수행위가 수월하지 못한 형태이다.

경관 위락형, 근린형, 이용형 등은 실제로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확보될 여지가 있는 많은 형태이며, 육지부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친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입지형태이어서 일반적으로 친수공간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의 여지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4〉

위치에 따른 어촌친수공간 분류

구 분	특 징	도입가능 이용시설
도시인근 지역	• 비교적 인구가 많고 정주여건이 양호하며 내방객 수가 많음 • 기반시설 정비가 진척되어 있고 개발 정도가 우수함 • 오염이 심하고 가용부지가 거의 없음 • 마을이 복잡하고 마을내 갈등요소가 많음	• 산업적 이용 • 상업적 이용 • 주거용 이용 • 주차장 등
관광위락 지역	• 수산업세력의 약화가 많이 나타남 • 내방객의 계절변화가 매우 큼 • 가용부지는 많으나 토지지가 높음	• 상업적 이용 • 공공접근시설 • 예술공간이용 • 행사와 축제
명승지 인근	• 연중 꾸준한 관광객 내방 형태를 띠며 • 개발제한적 요소가 많음 • 관광위락지역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친수공원 • 교통도로 • 공공접근시설 • 역사문화적 이용 • 전망대 및 전망로
기타 군지역	• 수산업이외의 산업이 거의 없음 •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남 • 가용부지는 비교적 풍부하며 지가는 낮음	• 산업적 이용 • 친수공원 • 행사와 축제

〈표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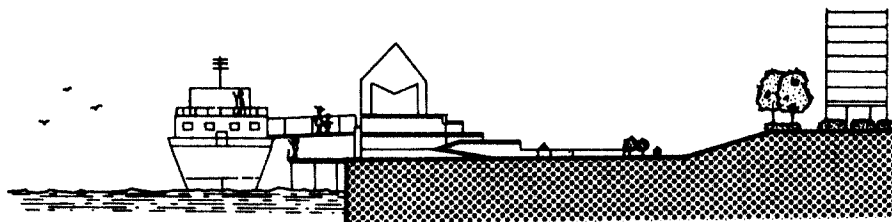
기능에 따른 어촌친수공간 분류

구 분	친수기능	수역이용	배후지의 토지이용
경 관 형	어항의 경관형	• 어선의 접안 및 계류 • 해상수송기관의 발착소	• 어항관련시설 • 상업업무시가지
경 관 위 락 형	해변의 경관위락형	• 항로 및 해역 • 운하	• 주택등 시가지 • 공원녹지
근 린 형	자연과 서로 접촉	• 해역(어선의 항행) • 운하	• 주택등 시가지 • 주산업복합시가지 • 공원녹지
이 용 형	수영, 위락형	• 수영, 백사장	• 상업업무시가지 • 관리시설 • 공원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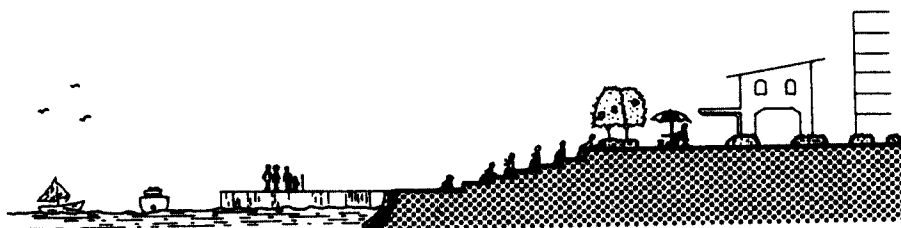
자료 : 동경도, 「임해부 부도심 개발기본계획」, 1988. 3. 및 「풍주·청해 개발정비계획」, 1987. 4.

〈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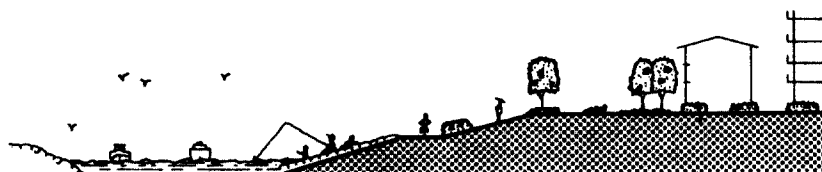
기능별 어촌친수공간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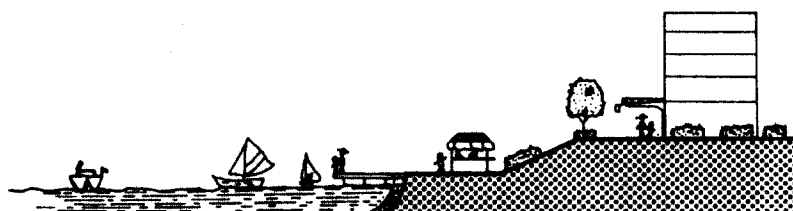
경관형



경관위락형



근린형



이용형

3) 도입시설에 의한 구분 및 중심시설에 의한 구분

시설에 의한 구분은 2절의 어촌친수공간 도입가능시설 편을 참조한다.

4) 투자재원에 의한 구분

어촌친수공간 개발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전체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익발생시설 부문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매립토지의 분양을 통해 재원조달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표 III-6〉 투자자원별 구분

구 분	도입가능시설
정부투자부문	산업적 이용(수산 및 기반시설), 교통도로, 주차시설, 공공접근시설, 전망대 및 전망로, 역사문화적 이용, 예술공간 이용
민간투자부문	산업적 이용(관광 및 제조업 시설), 상업적 이용, 주거용이용, 축제 및 행사

5) 관리체제에 의한 분류

관리체제에 의한 어촌친수공간 분류는 사업후 관리방안에 대한 것으로 지역민의 성숙도와 민관의 협조운영체제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체제에 의한 분류 방법은 정부관리, 민간관리, 정부투자 민간관리의

〈표 III-7〉 관리체제에 의한 분류

구 분	도입가능시설
정부관리	중요한 산업적 이용, 교통도로
민간관리	상업적이용, 주거용이용, 관광관련 산업적 이용
정부투자 · 민간관리	기타 산업적 이용, 친수공원, 주차시설, 공공접근시설, 전망대 및 전망로, 역사문화적 이용, 예술공간 이용, 축제 및 행사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개인별 관리와 지역사회 조직에 의한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투자·민간관리체제는 지역사회조직에 의한 관리를 뜻한다.

5. 해외 어촌친수공간 개발 사례

1) 일본사례

일본의 어촌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은 연안어업 활성화 구조개선 사업, 어항 어촌정비사업, 해안사업, 신마리노베이션사업 등에 의하여 주로 조성되고 있다.

일본 어촌친수공간에 대한 사업별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연안어업등진흥법, 어항법, 해안법, 수산청지침 등이 있다.

특히 일본은 어항건설시 일반어로용 어선과 분리하여 유어선만이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 및 피서리나 설치를 공동어항구역에 설치하여 복합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6년 기준으로 일본의 총 어선은 47만척이며 유어선은 32만척으로 어선세력 못지 않는 수량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8〉 일본의 어촌친수공간 관련사업 및 법규

관련 사업	관련 법규
연안어업 활성화 구조개선사업	연안어업등 진흥법
어항어촌정비사업	어항법
해안사업	해안법
신마리노베이션	수산청 지침

일본의 사례는 千葉縣의 富津市 體驗漁場(조개잡이)과 千倉町의 潮風王國 등의 어촌지역의 친수공간 이용사례를 살펴보고 해변공간이 인공적으로 이용되었다가 다시 자연상태로 복구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촌지역을 이용한 친수공간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친수공간의 조성 이외에도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한 당해 지역민의 소득 및 고용효과를 높이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9〉 일본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개요

구 분	주요시설	투자재원	비고
勝浦 海中展望塔	해중전망대, 해안도로	공공(시)	
千葉縣 富津市 체험어장	체험어장	어협, 어민	동경인근
千葉縣 千倉町 潮風王國	쇼핑센터, 화훼단지	제3섹터	
靜岡縣 해변 복구	백사장	공공(현)	
廣島縣 인공백사장	백사장, 주차장	공공(현,시)	

(1) 勝浦 海中展望塔

- 공사착공 : 1978. 9월 준공
- 규모 : 탑높이 24.4m, 정원 50명
- 총건설비 : 13억엔
- 운영주체 : (재)千葉縣 勝浦海中公園센타
- 연간 약 90여 종류를 볼 수 있는 자연수족관임.
- 대량의 해양생물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인공수족관이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해중전망탑은 인기가 저하
- 일본 전국에 6개의 해중전망탑이 있으나 사정은 유사함.
-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하나 공공단체의 지원으로 유지되므로 재원조달이 어렵고 문제임.
- 3주변에 '千葉縣 바다(海)박물관'(千葉縣 教育廳事業 1999년 봄에 오픈 예정) 건설로 내방객의 증가가 기대됨.
- 1997년의 입장객수가 29만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음.



(2) 千葉縣 富津市 체험어장(조개잡이)

- 어업의 쇠퇴로 침체해 가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장을 이용한 관광 사업에 주력
- 20년전부터 체험어장을 시작하였으나 도로정비가 이루어진 10년 전부터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음
- 최근에는 동경만을 가로지르는 다리 아쿠아라인(Aqualine)의 완성으로 관

광객이 더욱 증가

- 안전하고 가족이 전체 즐길 수 있으며 잡은 조개를 선물로 가져갈 수 있고
동경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관광객이 증가
- 체험어장 입장료 및 수산물 판매(선물용) 수입(1997년의 경우 수입: 7,400
만엔, 입장객: 11만 4천명) · 조합 유지비 충당 · 시설유지 및 청소비
- 어민들의 소득증대 관련
 - 조합부과금 7만 2천엔 면제
 - 체험어장 정비에 고용(일당: 7천~1만엔)
 - 선물용 수산물 판매를 위해 어민들로부터 조합이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므로 어민에게 소득증대효과
- 단체관광객(회사원 등)이 많음

〈그림 III-6〉

千葉縣 富津市 체험어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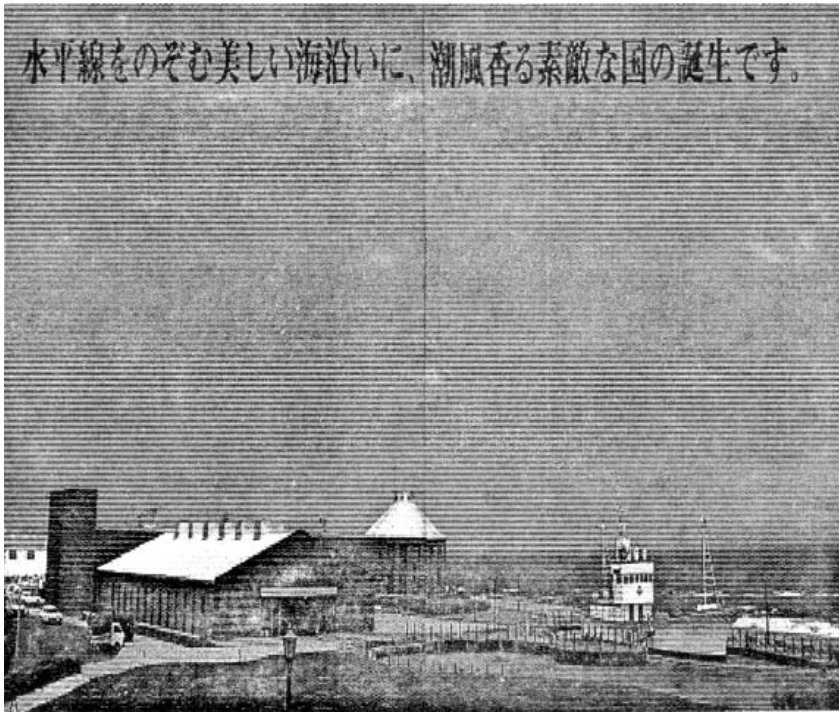
(3) 千葉縣 千倉町の 潮風王國

- 처음에는 주변에 화훼재배로 인한 관광객의 내방이 빈번하게 되었음.
- 화훼관광객을 어촌지역 경제와의 연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와 어협간의
이해 통일
- 町의 활성화, 어촌의 활성화에 기여

- 3천㎡ 매립지에 해변친수공원(9억엔)과 수산물 판매시설(6억엔)
- 제3섹터로 운영(町 52%, 조합 48%)
- 이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센터(판매시설) 및 해변 친수공원을 조성
- 화훼단지과 해수욕장으로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내방
- 1997년도 매출액 5억엔
- 지역민 고용효과(시설내 종업원 32~33명 고용)

〈그림 III-7〉

千葉縣 千倉町の 潮風王國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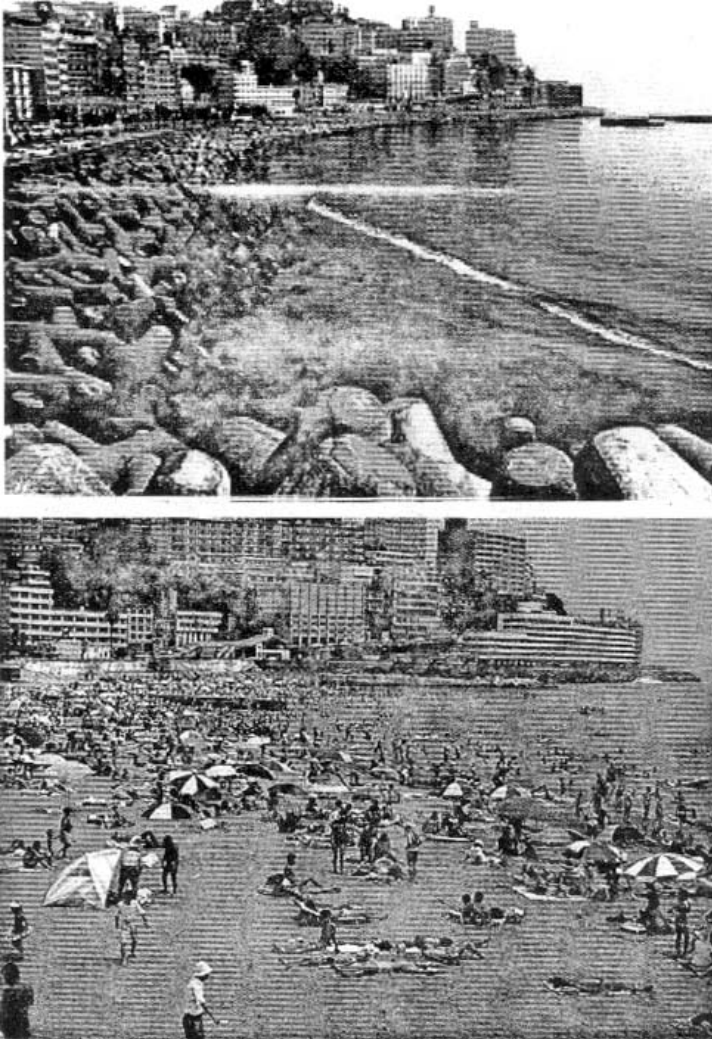


(4) 静岡縣 해변공간 복구

- 매립으로 인한 모래사장 상실되어 시민의 바다의 접근성이 저해되어 바다 경관(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TTP를 제거함으로써 인공해수욕장을 창조한 사례이다. 관광객수는 연간 450만명 정도

〈그림 III-8〉

靜岡縣 해변의 과거와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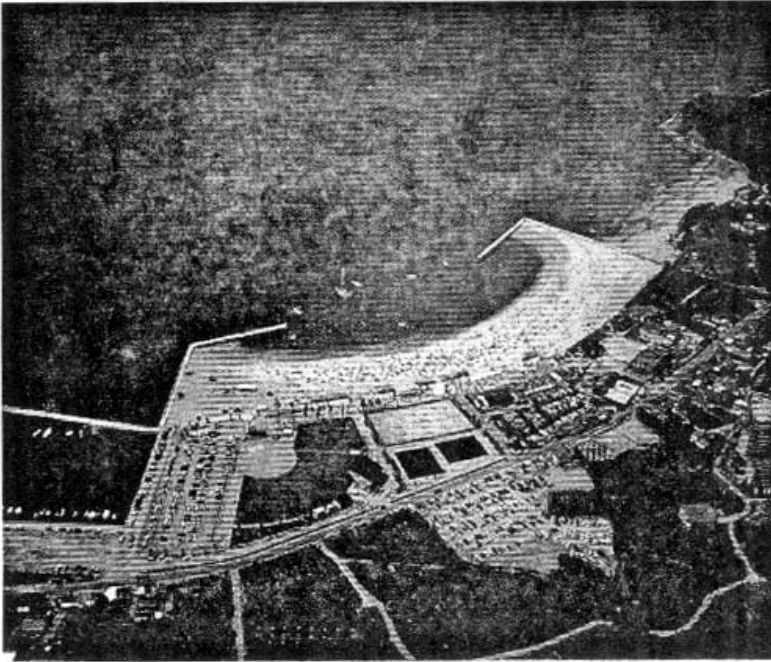


(5) 廣島縣 人工 백사장

—매립공사로 인하여 모래사장이 감소하여 바다앞에 잠제(수중방파제)를 건설하고 양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백사장을 복원시킨 사례이며 관광객은 연간 20만명 정도임.

〈그림 III-9〉

廣島縣 人공 백사장 모습



2) 미국사례

미국의 어촌지역(해안 소도시)의 친수공간은 대부분 수산가공업, 창고, 목재

〈표 III-10〉

미국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개요

구 분	주 요 시 설	투자재원	비고
Washinton주 Skamokawa	교회, 상가시설	공공(카운티)	비영리
Oregon주 Seaside	물놀이장, 숙박시설	공공(시), 공사채발행	
Washington주 Edmonds	상태공원	공공(시)	
California주 Arcata	오수처리시설, 생태습지	공공(시)	

처리장, 소규모 부두 등으로 이용되던 지역이 이들 관련산업의 이동과 퇴조로 발생된 공간을 재활용하여 관광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의 재활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레곤과 워싱턴 주의 소규모 해안도시의 개발사례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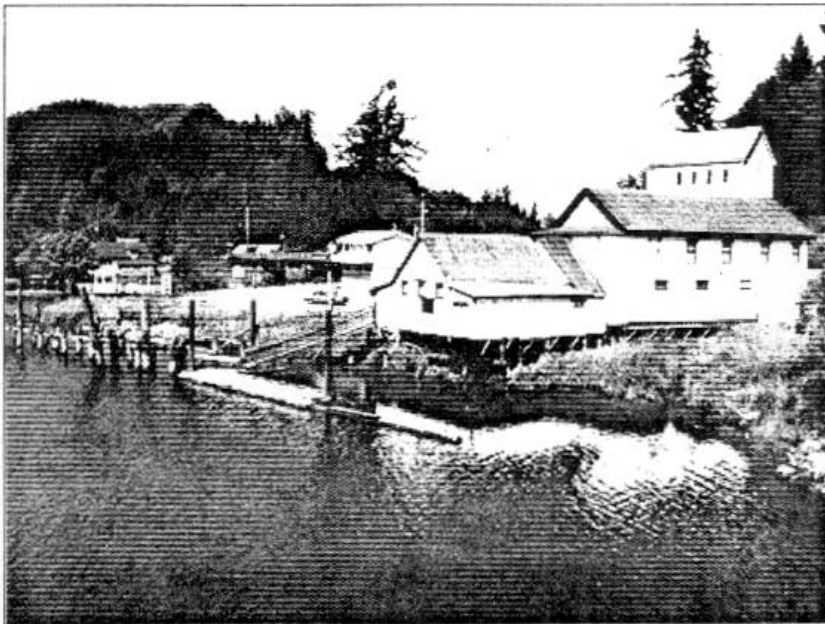
(1) 워싱턴주 Skamokawa의 전통가옥을 이용한 친수공간 개발

Skamokawa 지역은 인구 400명의 소규모 강하구 마을로 콜롬비아강 하구에 서 몇 마일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상업적 낚시와 농업 위주의 경제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들의 경제성 확보가 점차 힘들어지고 마을내의 오래된 역사적 건물인 Redmen Hall(교회)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데 착안하여 종탑을 비롯한 전체 건물을 개·보수하여 상업용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였다.

〈그림 III-10〉

Skamokawa의 어촌친수공간



강변을 이용하여 선착장을 지나게 조성함으로써 인근의 캠프시설과 연계한 상업시설을 건설하였다.

‘Friends of Skamokawa’라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상가를 운영케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인근에서 성행하는 낚시와 요트 관광객을 대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가옥을 이용한 개발사례이다.

(2) 오레곤주 Seaside의 해변공원

Seaside는 오레곤주의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마을로서 인구는 5,700명 정도인 소규모 해변마을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해변을 이용한 관광지역이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강과 바다를 연계 개발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킨 사례이다. 다양한 생물과 해양과의 조화를 이룬 강의 이용은 강과 바다를 연계시킨 해변공원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인근의 생태환경을 이용하여 생태공원으로 발전시켰으며 전망대 및 산책로를 개발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III-11〉

Seaside의 해변공원



투자재원은 세금인상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관광객이 늘고 자산이 증가하자 자산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본격적인 안정 경영을 실현하였다.

공원내에는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다와 강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 워싱턴주 Edmonds의 공공 접근이용 사례

Edmonds 지역은 인구가 2만 8천명 정도의 중규모 도시지역으로 시애틀과 에버렛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과거 재제소가 번성했던 곳으로 타 산업에 비해 오염발생이 적었으며 목재운송이 가능하도록 항구의 수심이 깊은 편이었다. 그러나 재제소가 폐쇄되자 해안의 접근은 용이해졌으나, 기존의 폐기물들에 의해 미관이 손상되고 있었고 인근에는 많은 바다생물들이 해변을 찾게 되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시에서는 항지역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해양생태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생태교육의 좋은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I-12〉

Edmonds의 해양생태공원



공원내에는 별다른 시설을 두지 않고, 넓은 open space와 산책로, 조깅로, 자전거 도로를 둠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과 여유허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캘리포니아주 Arcata 습지생태공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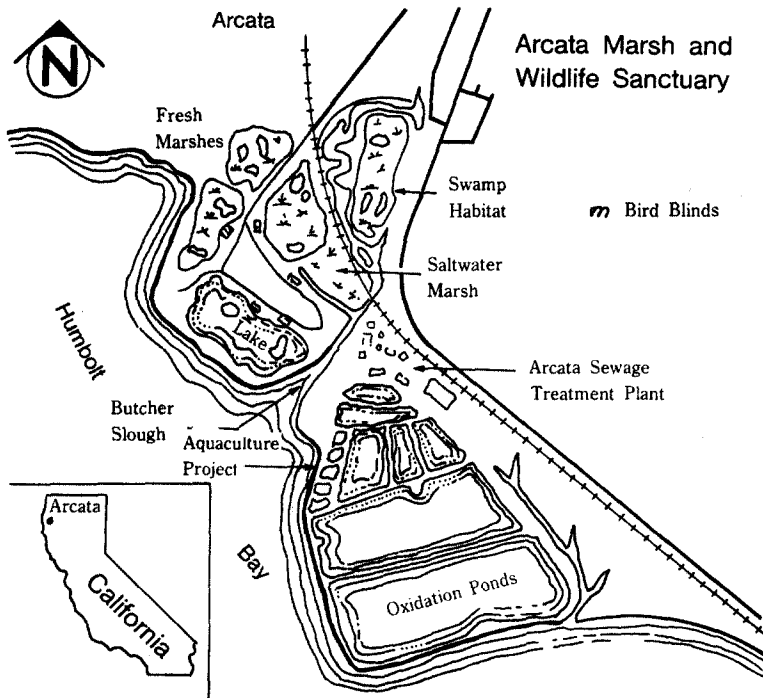
Arcata 지역은 인구 15,000명의 소규모 해안도시이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해안가는 담수 습지와 해수 습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오수처리장이 유치되고 오수의 최종처리를 토양 트랜치법과 유사한 습지이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각종 폐기물들이 정리되고 관리를 위한 보도가 설치되었으며 지역 어업의 회생을 위한 송어·연어 양식이 인근 대학의 시도로 성공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매년 친수공간 개발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Waterfront Day'를 지정하여 지역 축제일로 삼고 있다.

〈그림 III-13〉

Arcata의 습지생태공원



第 4 章 漁村親水空間 開發計劃 樹立方案

1. 체계적 계획의 필요성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어촌친수공간은 항만이나 기타 대도시의 친수공간과는 경제규모, 지역배경, 산업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재의 투자와 도시공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친수공간 개발과는 개발계획의 절차와 검토되고 조사되어야 할 범위가 달라진다. 어촌친수공간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공동 운영관리를 고려해야 하며, 또 이들을 개발계획에 깊이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사후관리의 적극성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결국 이렇지 못해 어촌주민이 적극성을 갖지 못하고 어촌지역 정서에 반하는 개발계획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촌친수공간의 개발계획에는 지역의 자연·경제·사회·문화·조직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상세한 계획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단계별 계획수립과 계획기법의 제안

어촌지역의 특성과 어촌친수공간 개발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검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획기법을 제안한다.

계획수립 절차는 총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조사과정에도 지역주민과 공무원, 기타 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계획기법은 ‘Waterfront revitalization for small cities’에서 제시된 내용을 초안으로 하여 국내여건과 부합되도록 수정한 것이다.

각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기법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어촌친수공간 단계별 개발계획 추진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세부추진절차
1단계	구상 및 시작	자체계획팀 구성, 개략계획절차 확정, 지역사회 참여방안 마련, 컨설팅팀과의 제휴, 정부참여방안 마련
2단계	어촌친수공간의 조사	대상권역의 설정, 자료조사, 문제점 및 배경분석, 개발초안 작성
3단계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 수립	계획 세부요소 결정, 개발목적 최종 확정, 대안제시, 소요비용 산출, 계획안 최종 결정
4단계	어촌친수공간의 구현	개발관리방안 마련, 토지이용계획 마련, 단계별 투자계획 마련, 자원조달방안, 시설분양 및 관리
5단계	사업 지속추진 및 평가	사업추진 평가 및 수정안 제안

1) 1단계-구상 및 시작 단계

1단계는 어촌사회에서 문제점 인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융화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 i) 자체 계획팀의 구성 : 지역사회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서 알려져 있지 않은 권역내의 중요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컨설팅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갈 어촌 자체의 계획팀을 구성한다. 어촌계장, 이장, 지역 출신 지방의회의원, 마을원로, 기타 지역 조직 리더들이 참여하거나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 ii) 개략 계획절차 확정 : 주민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향후 계획절차에 대한 방향을 확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공청회 등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방법도 결정한다.
- iii) 지역사회조직의 적극 참여 유도 : 상호 배타적인 공간활용이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조직,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유자와 수산 또는 관광 관련 사업자 등이 공동의 이익을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에 참여시킨다. 또한 청년단체, 교육단체 등 공익기능 수행 단체를 참여시켜 객관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한다.

- iv) 전문적 컨설팅팀과의 제휴 : 국가정책의 방향, 각종 법규와의 저촉, 세부 상세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팀과의 제휴를 추진한다. 이 그룹에는 관련분야의 자문연구소, 전문개발업체, 지역대학, 환경전문가, 엔지니어, 지역계획가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 v)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참여 :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전문 컨설팅팀이 결정되면 계획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토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참여를 실현시킨다.

2) 2단계 -어촌친수공간의 조사

2단계에서는 어촌친수공간 계획에서 조사해야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지역의 조사가 수행되며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 i) 대상권역의 결정 : 제한된 투자재원과 사업의 안정적 관리, 이용가능한 공간 여부 등에 의해 대상권역의 범위를 확정한다.
- ii) 개발계획 관련 자료조사 수행 : 지역 계획팀, 컨설팅팀, 행정기관별로 공급가능한 자료의 분석과 추가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조사방법 등이 결정되고 현장에 대한 상세 조사가 수행된다.
- iii) 친수공간을 둘러싼 문제점과 배경 분석 : 현재의 해안이용 행태와 기존의 산업활동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한다.
- iv) 자료의 분석을 통한 개발 초안 구상 : 각 팀별로 수집된 자료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이를 공식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각 팀별 개발 초안을 구상한다.

〈표 IV-2〉

어촌친수공간 개발시 조사항목(예)

구 분	조 사 항 목
경제활동 부문	• 지역의 인구변화 • 지역경제의 낙후정도 • 해안공간 이용과 활동의 계절성 •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 • 미이용 또는 장애물 • 해양관련 산업의 공간 과부족 • 토지/바다 수요 및 공급 가능성 • 부적합한 항이용 행태 및 항시설(산업적, 상업적, 여가적)
토지/바다이용 부문	• 해양관련 산업에 대한 대체 압력(주거용, 관광, 공공접근, 보전 등) • 소유형태의 문제점 • 부채지주 문제 및 관리 방안 • 금지구역, 유허토지, 미관저해 토지 현황 • 기타 토지 이용 갈등
도시계획 및 경관구축 부문	• 주요 식생 • 시가지역 특징 변화 • 대규모 절토지역 유무 및 계획 • 시각적 장애물 • 낙후된 호안시설 • 고형 폐기물, 쓰레기 등
레크리에이션 이용부문	• 과집중되거나 부적절한 공적기능 시설 • 설치되지 못한 레크리에이션 이용 요구 • 친수공간 이용자간의 이용상 갈등 •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
공공접근 이용부문	• 낙후된 공공시설(물리적 또는 시각적) • 적합치 못한 바다접근 장애물 • 해안공간에 대한 도보 또는 차량접근제한 구조물(철도, 고속도, 토지이용, 구조물 등) • 친수공간과 중심지와의 분리 형태(토지이용, 도로형태, 지형적 특징) • 공공 또는 개인의 안전 대책(범죄, 야간통행 등) • 공공용 접근로나 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구 분	조 사 항 목
교통순환 및 주차장 이용부문	• 교통 및 도로조건 • 차량과 기타 이용수단의 분리성 결여 • 친수공간과 조화되지 못하는 주차장 • 주차가 필요한 친수공간의 분포 • 산업 이용 시기별 교통로 이용 갈등 여부 • 불합리한 교통순환체계(주거지 관통, 급경사지 분포)
역사문화적 이용부문	• 훼손되거나 방치된 역사·문화유적 • 지역주민의 신성 지역 • 관광객과 주거민의 이용상 갈등 • 전통적 문화의 계승 노력과 유형화 노력
환경관련 이용부문	• 간사지(갯벌) 또는 야생동식물 보호 필요 지역 • 수질, 오염 문제 유발시설 및 현황 • 위험물질 배출, 매립 실태와 계획 • 기상 및 지형조건
법·제도적 검토	• 상위계획 • 계획 및 허가절차의 복잡성 및 소요기간 검토 • 각종 규제와 개발여건 검토

3) 3단계-어촌친수공간의 개발계획 수립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아이টে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상세계획, 설계가 수행되며 개발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최종적인 개발안이 확정되는 단계이다.

- i) 계획에 고려될 세부요소의 결정 : 구체적인 친수공간 이용실태 파악을 통한 각 부문별 개발의 영향과 개발방향이 결정된다.
- ii) 개발계획의 목적과 최종 방향 결정 : 제안된 개발요소에 의해 전체 권역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안을 확정한다. 목적의 내용은 간결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문안에 주의해야 한다.

〈표 IV-3〉

어촌친수공간 개발의 분야별 목표(예)

분 야	목 적
경제개발 부문	• 기존 해양관련 이용을 보호하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킴 • 해양의 역사와 활동을 강조하고 관광객의 매력과 감동을 위한 공간 개발 • 지역의 세원을 확보하고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 상업시설 등을 도입하여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킴
토지/바다 이용부문	• 친수공간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 다양한 토지이용의 유도과 기존의 바다이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토지이용기반 구축 •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을 위한 기반의 구축
도시계획 및 경관구축 부문	• 소도읍, 어촌의 분위기와 특징의 개발과 유지 • 어촌으로 향하는 새로운 관문의 개발 • 주민 공동의 노력을 통한 어촌미관의 건설
레크레이션 이용부문	• 해양관련 레크레이션의 기회제공과 기반구축 • 수려한 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하여 휴식공간 제공
공공접근 이용부문	• 새로운 바다 접근방식의 개발 •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접근이 가능토록 계획함으로써 지역의 발전도모 • 다목적 바다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교통순환 및 주차장 이용부문	•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보, 차로의 개발 • 내방객과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개발
역사문화적 이용부문	• 역사적 배경의 홍보와 지역문화 소개 • 기존 유물의 보존과 이를 이용한 지역개발 • 전통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이벤트를 통한 지역 활성화
환경관련 이용부문	• 갯벌 등 특수환경의 보전 • 오염원 처리 시설과의 연계 개발 • 해양침식과 식생보호를 위한 시설개발

- iii) 대안제시 : 개발안은 대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한 대안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자칫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향후의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 친수공간 계획시 융통성을 부여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iv) 소요비용 산출 : 계획된 안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비용산출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곧 재정계획의 기초가 되고 정부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합리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설계를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 v) 계획안 최종결정 : 비용산출과 개발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개진과 계획단의 판단에 의해 최종적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이 마련된다.

〈표 IV-4〉 어촌친수공간 건설시 고려해야 할 비용(예)

구 분	고 려 사 항
대상지의 철거, 정비 및 개발	• 불결하거나 불필요한 구조물의 철거(폐가, 폐선 등) • 불필요한 이정표 제거 • 오염토양 또는 준설토의 제거 • 대상지내 신규도로개발과 이정표 설치 • 조명시설 설치 • 조경 및 포장 • 도로변 정비
건물건축	• 건물기초 • 친수성 디자인 • 기존 건축물 이용 방안 • 해양기후나 활동에 맞도록 편의 시설 구비
어항시설	• 방파제 및 쇄파제 • 물양장 • 어선계류시설 • 어선수리시설 • 급유·급수시설 • 위판장 등 유통시설 • 유람선 또는 관람시설 • 이용자 안전시설
기타 비용	• 디자인 및 설계비용 • 조사 소요비용 • 세금, 보험 등 부대비용 • 환경영향 산정비용 및 유지비용 • 개발 예비비

4) 4단계 - 어촌친수공간의 구현

4단계는 확정된 계획안의 실현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개발의 관리와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재정계획 확정 등 사업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 i) 어촌친수공간 개발관리 : 수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사자, 계획가, 건설가와의 공동 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하며 협의의 상설화를 구상한다.
- ii)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와 지원책 마련 : 개발소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팀과의 협의를 통한 합의도출 및 지원가능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한다.
- iii) 단계별 투자계획 마련 : 전체 계획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원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집행한다.
- iv) 재원조달계획 확정 : 사업 아이টে별로 민간, 국가재정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여건변동에 대비하여 집행가능한 공공시설 부문을 우선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v) 상업용 시설의 분양 및 관리방안 마련

5) 5단계 - 사업 지속추진 및 평가단계

5단계는 사업의 추진을 지속시키는 방안 마련을 위해 부분적인 사업계획의 수정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관리 방식을 변경(결정)하며, 사업 추진결과에 따른 각 이익집단별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第5章 國內 漁村親水空間 및 開發計劃 事例

1. 국내 어촌친수공간 사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다와는 친수적이지 못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다. 장보고나 이순신같은 걸출한 바다의 정복자가 있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 바다는 왜구와 해적이 나타나는 위험지역이며 천한 부류의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천시했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수산업이 본격적인 산업으로 등장하고 바다이용의 무한한 가치가 알려지면서 점차 전통적인 바다기피 정서가 탈색되어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과거 우리의 친수공간은 해돋이나 일몰을 바라보는 정자시설, 해수욕장, 낚시시설 등 하드웨어 시설과 달맞이 행사, 해돋이 행사, 풍어제, 연등제, 방류행사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시설이나 행사도 인근지역의 극소수가 참여한 제한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어항 등 어촌기반시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활성화된 어촌을 중심으로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촌지역에 대한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사업은 1990~96년의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개발사업, 1994년 이후의 어촌종합개발사업, 1997년 이후의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1999년의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어촌친수공간 개발은 라이프사이클상 초기 도입기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아직 개념정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업별로 주 사업내용을 간략히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V-1>과 같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해안별로 특성이 다양하여 해안별로 친수공간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해안에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강하여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고

〈표 V-1〉 우리나라 어촌친수공간 관련사업별 현황

구 분	주 내 용	사 업 년 도
어촌관광개발사업	67개소에 61억여원 지원	1990~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한 권역에 35억원씩 투자	1994년 이후 계속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한 지역에 30억원씩 투자	1997년 이후 계속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사업	계획중	1999년 계획

최근에는 백사장이 점점 침식되어 감소하고 있고 강원도 동해안 일부지역에서는 연어의 회귀지역으로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해안친수공간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자연적·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자연적 여건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친수공간 시설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V-2〉 국내 어촌친수공간 개발사례 개요

구 분	주 요 시 설	투자재원	비 고
속초 대포항	수산물 유통시설, 관광휴게시설	공공+민간	계획중
고성 동해낙시공원	양식장, 낙시터	민간	
보성 해수풀장	해수수영장, 해수탕	공공(보성군)	30억원 추가 투자 계획
격포항 수산물판매장	수산물 판매장	민간	
양양 물치항	예술전시공간, 공연장, 전망대	공공	어촌계공동운영
울산 신암리 호안	호안	공공	계획중
강릉 사천진 해상낙시터	낙시터	공공	〃

서해안의 경우에는 수심이 얕고 파도가 약하지만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해안의 경우는 태풍 등의 상습피해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등의 해난재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를 고려한 어촌친수공간시설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는 국내사례로서 조사된 일곱 개 지역의 친수시설계획과 특징을 나열하였다.

1) 속초 대포항의 관광어항 개발계획

해양수산부는 1997년에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종합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규모보다 무려 11배나 큰 규모로 확장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기본시설, 매립을 통한 부지조성, 친수공간시설 등이 구비되고 있다. 또한 육상의 주요시설은 수산물 유통·판매기능, 어선·어구보전기능, 수산물처리·가공기능, 보급기능, 문화복지기능, 관광휴게기능 등의 주요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현재 대포항은 대표적인 강원북부의 관광어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난장형성을 통한 난개발과 공간부족으로 하계절에는 지역의 큰 장애요인이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표 V-3〉

대포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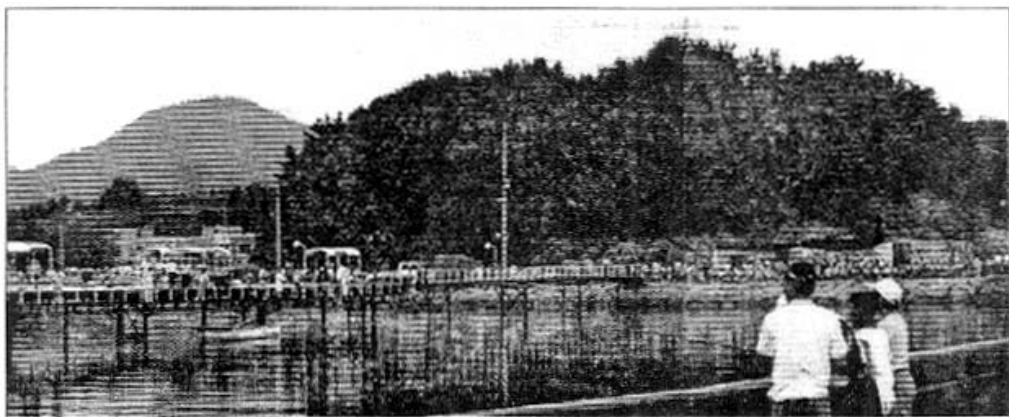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명
기본시설	방파제 980m, 물양장 740m
부지조성	80,150m ²
친수시설	친수등대, 호안, 해양체험공간조성 1,260m ²
수역면적	171,066m ²
총사업비	484억원
공사기간	8~10년 소요추정

2) 경남 고성의 동해낙시공원

- 국내 최초의 축제식 양어 낙시터
- 1995년 공사착공, 1998년 8월 15일 개장
- 총공사비 : 30억원
- 운영방법 : 개인이 운영함
- 규모 : 6만평 (3만평 : 양식장, 3만평 : 낙시터)
- 낙시터 중간에 너비 2m, 길이 230m의 잔교설치
- 200여명 동시 수용
- 어종 : 넙치, 돔, 농어, 송어, 조피볼락등
- 배후지 400여평에 10억여원을 별도로 투자하여 식당, 횃집, 숙박시설, 매점 등의 5개동의 건물 완성
- 차후에 해상골프장, 요트장의 개발계획 등의 조성으로 종합레저타운 개발 계획 조성
- 매출액 : 월평균 4천만원 정도임
- 민간의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 주변의 창선대교, 가덕대교,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 고성-마산간 연육교의 개통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예상됨

〈그림 V-1〉

경남 고성 동해 낙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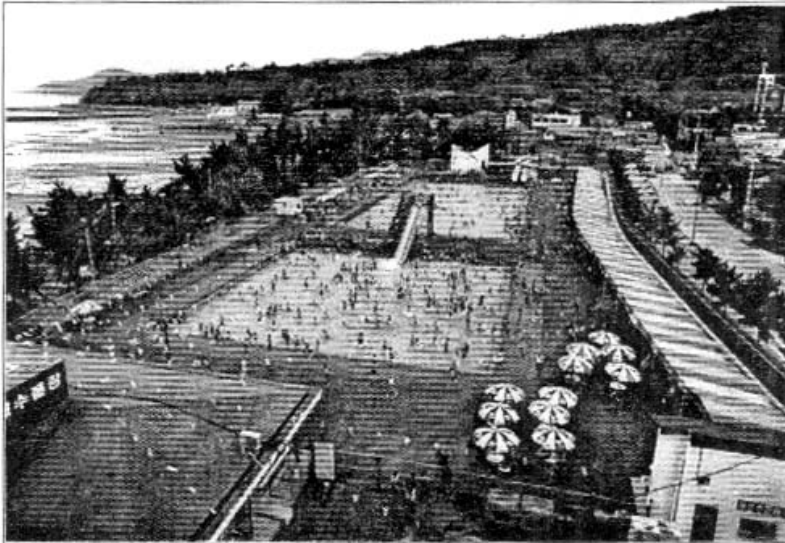


3) 전남 보성의 해수·해녹탕 및 해수풀장

- 총공사비 : 35억원(지자체 투자)
- 해수풀장 : 1993년 여름 개장
- 해수·해녹탕 : 1998년 4월 13일 개장
- 규모 : 1,600평(해수풀장 : 1천평, 해수·해녹탕 : 600평)
- 운영 : 보성군에서 직영함
- 직원 : 9명
- 매출액 : 월평균 6천만원 정도임
- 장차 30억원(해양수산부의 어촌 휴양단지 자금 15억원과 자체자금 15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해수풀장의 4계절 이용을 위한 돔(Dome)시설 및 해수·해녹탕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림 V-2〉

전남 보성 해수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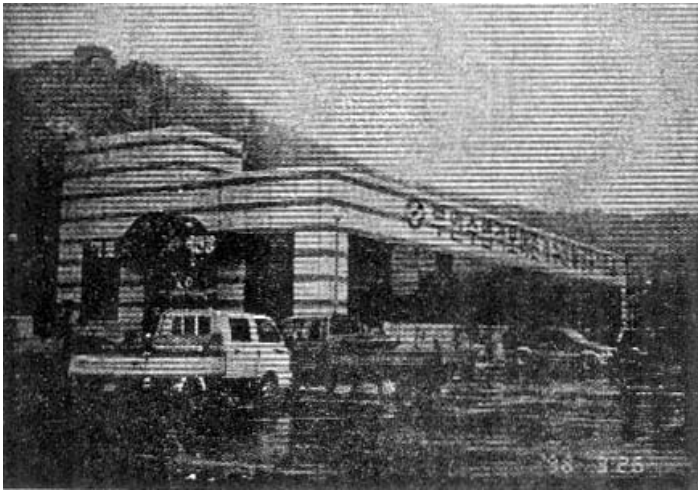
4) 전북 부안 격포항내 수산물 공동판매장

- 격포항은 제1종어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전북 남부의 중심어항임

- 공사비 : 7억여원
- 준공 : 1997년 9월
- 운영방법 :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직영 및 임대운영
- 규모 : 1,100여평 (건물 2동)
- 매출액 : 월평균 5억원 정도
- 어촌계원들이 공동출자하고 부지는 해양수산부 1종항부지를 불하받아 건설하였으며 대부분의 출자계원들은 현재 판매장 운영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
- 인근의 변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판매장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 건물이 미관을 고려하지 않아 시작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음.

〈그림 V-3〉

전북 부안 격포항 수산물 공동판매장



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친수성 어항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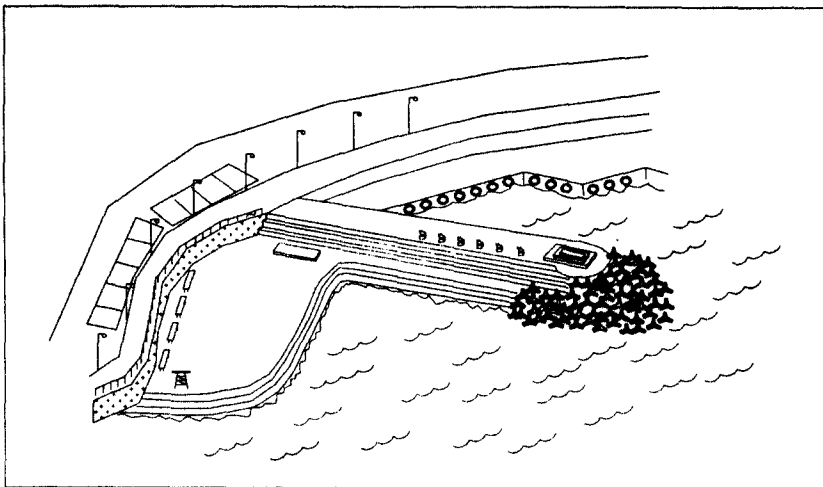
본 지역은 1종항인 속초 대포항과 인접하여 있고 설악동을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여 연중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물치항 어항시설(방사제)의 배후공간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조성토록 계획한다.

- 친수공간의 총면적은 약 5천㎡로서 공연행사를 유치할 경우 3천명의 관중이 관람할 수 있는 규모임.
- 상충부의 넓은 공간에는 야외공연 등을 위한 간이무대시설과 벤치를 설치하며 지역의 안내와 특산물을 소개하는 지역광고판을 설치함.
- 국도변을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고 물치항과 연결되는 도로보를 개설하여 물치항의 주차공간(400여대)과 편의시설을 이용토록 공간계획을 세움.
- 방사제의 끝부분에는 해돋이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다기능화 되도록 고려함.
- 친수공간과 바다의 접촉은 계단식으로 설계하고 상충부의 넓은 공간은 월파에 대비하여 바다쪽으로 경사지게 만들고 배수시설을 함으로써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계획함.
- 방사제의 선단부분의 수심은 5m 정도로 낚시에 적당한 수심을 가지고 있어 낚시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고정좌대 등의 설치를 고려함.
- 어린이나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광고판을 설치하고 대규모행사시 안전요원과 시설을 배치하여 불상사를 방지함.

〈그림 V-4〉

물치항 친수공간 개념도



—도로변 주차장을 따라 가로등을 배치하여 수려한 야경을 연출하도록 하며
방사제의 일부공간을 지역조각작가들의 조각품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함.

어항시설을 이용한 친수공간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관광기능 확대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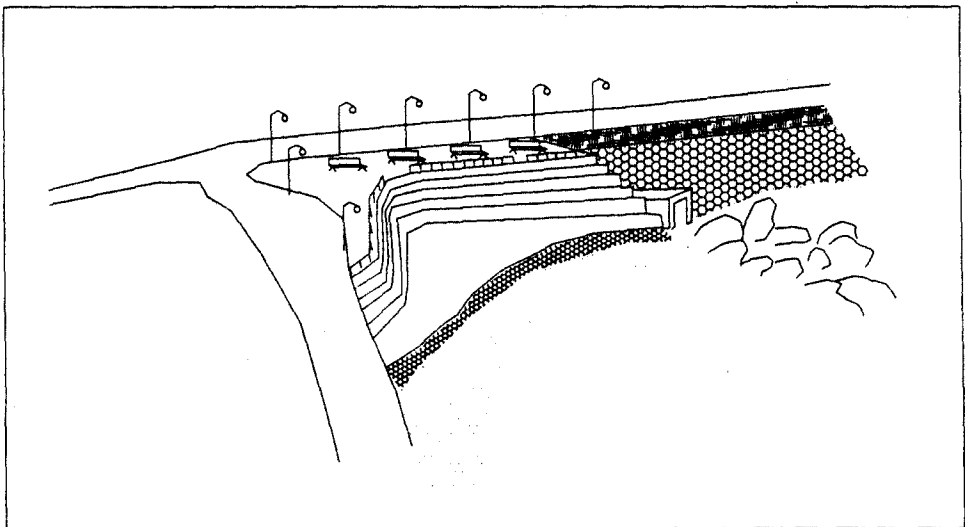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암면 신암리 친수성 호안 계획

본 지역은 높은 파랑과 파도로 가옥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고 호안 자체의 파
손도 심한 지역으로 친수성 호안으로 재건설하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계단식
호안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여가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유수면(백사장)의 일부를 점용하여 기존의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후면의

〈그림 V-5〉

신암리 친수성 호안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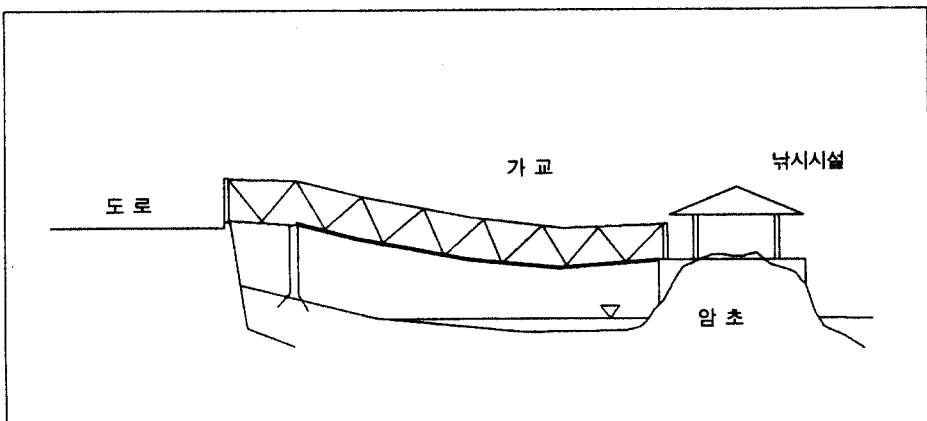
- 주거지역이 월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사석제 호안구간도 노폭을 확장하여 미흡한 호안기능을 보강하도록 함.
- 그러나 단순히 사석제로 호안을 설치하는 것은 마을의 경관유지나 환경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공유수면구간은 현재 해안선이 백사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존의 사석제 구간과는 달리 사람들의 접근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음.
 - 호안의 상층부는 벤치, 가로등 등을 배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바다쪽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조망대 기능도 갖도록 설계함.
 - 해변으로의 접근은 계단식으로 설계하여 안전한 접근이 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계단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함.
 - 호안구조물과 백사장의 경계부는 자연석으로 마감하여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토록 하였고, 현재 호안 설치지역에 흐르고 있는 구거는 호안시설로 복개하여 도로변을 따라 호안아래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도록 설계함.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낚시터 개발 구상

사천항의 북측에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사빈지역이 있으며 이 사빈지역에서 바다쪽으로 30여m 떨어진 곳에 면적 200평 정도의 둥그런 암초가 하나

<그림 V-6>

사천진리 낚시터 구상도



돌출되어 있어 이를 해변과 가교로 연결함으로써 친수성 해상낚시터를 계획한다.

- 본 지역은 바다새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 경치가 수려함.
- 해안도로와의 가교를 설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암초지역에는 정상 부근에 정자를 설치하여 낚시객들의 휴식공간과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파도가 심한 지역으로 안전을 위한 시설(구명동의, 비상전화)을 구비하도록 계획함.
- 해수에 의해 시설이 부식되지 않도록 자재가 선택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함.

2. 개발계획수립 사례(남해군 서면권역)

본 절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된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 수립기법에 따라 경남 남해군 서면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계획의 수립은 전체 5단계 사업계획중 지역의 조사로 가능한 2단계에 대한 내용이며 조사결과 나타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권역은 남해군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 광양제철 및 여천공단 입주로 인해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져 그 후 급속도로 수산업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어선어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업과 공존할 새로운 어촌의 활력소를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 향후 삼천포와 창선도를 잇는 창선대교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경남 동부지역과의 연결이 크게 개선되면 본 권역의 관광객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내의 자연조건이 수려하고 가용토지가 충분하여 지자체에서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다.

1) 경제활동부문

(1) 인구변동추이

서면의 인구 및 가구수 변동을 살펴보면 가구수의 증가율은 -0.93%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인구수에서는 더욱 감소하여 -3.6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가구 전체의 이출보다는 가구원 일부의 이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 남해군 서면권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단위: 호, 명, %

연 도	경 상 남 도		남 해 군		서 면	
	세 대	연평균 증가율	세 대	연평균 증가율	세 대	연평균 증가율
1976	630,102	2.92	21,932	-0.38	2,091	-0.96
1981	727,716	3.24	21,520	-0.26	1,993	-1.54
1986	853,506	4.29	21,246	-0.23	1,844	-1.07
1991	1,053,065	3.15	21,008	0.48	1,747	-0.16
1996	1,229,777		21,513		1,733	
전 체		3.40		-0.10		-0.93
연 도	인 구	연평균 증가율	인 구	연평균 증가율	인 구	연평균 증가율
1976	3,275,867	0.86	118,726	-3.07	11,098	-3.82
1981	3,419,566	0.56	101,575	-3.19	9,134	-4.48
1986	3,516,829	1.38	86,389	-2.32	7,265	-5.51
1991	3,767,196	1.32	76,833	-2.87	5,473	-0.76
1996	4,021,831		66,406		5,267	
전 체		0.95		-2.86		-3.66

자료: 경상남도·남해군·서면, 각 「통계연보」, 각년도.

이와 더불어 남해군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경상남도나 남해군 및 서면의 경우도 15~64세의 노동연령층은 거의 비슷하여 부양률에서도 큰 변화는 없으나, 1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구성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에 비하여 14세 이하의 연령층비율보다는 65세 이상의 연령층 비율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

서면 인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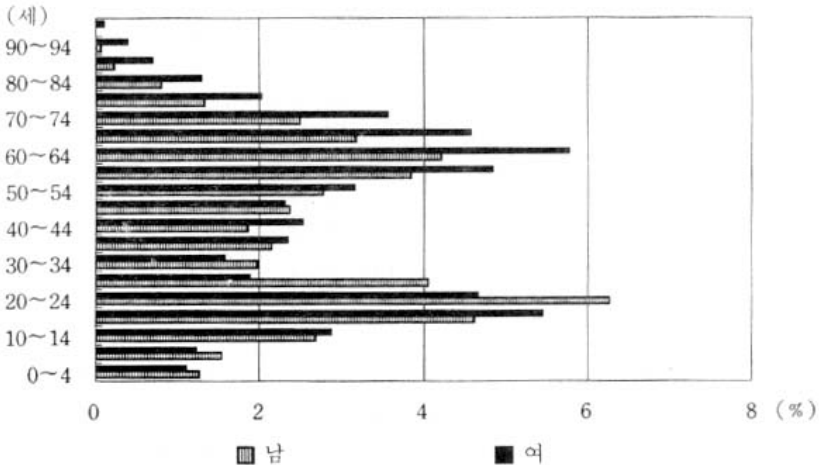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경상남도		남 해 군		서 면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계	3,949,903	100.0	66,362	100.0	5,276	100.0
14세 이하	954,838	24.2	9,886	14.9	563	10.7
15~64세	2,752,300	69.7	45,167	68.1	3,621	68.6
65세 이상	242,765	6.1	11,309	17.0	1,092	20.7
부양률	43.5		46.9		45.7	

자료: 남해군,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 1998.

〈그림 V-7〉

서면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서면의 인구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전 인구감소율보다는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낙후정도

서면권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농업과 수산업을 들 수 있다. 제조업은 권역내에 입지하여 있지 않고 있으며, 관광업으로 표시할 만한 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① 농업현황

서면의 농가비율이 거의 70%를 넘는 것으로 일반 읍면의 농가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서상리는 전담의 경지면적은 다른 리보다 적지 않으나 작장리와 더불어 담보다 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당 경지면적은 대부분이 0.50ha를 넘고 있으나 서상리만이 0.38ha를 나타내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농업의존도는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표 V-6〉

서면의 농업환경 현황

단위 : 호, 명, %, ha

리별	농가수	농가인구수	농가비율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전	담	
대정리	159	1448	82.81	27.56	92.04	0.62
서상리	198	611	63.46	67.01	48.20	0.38
작장리	173	503	79.72	71.93	53.41	0.58
남상리	238	660	81.23	68.48	80.72	0.52
노구리	170	469	80.57	44.40	85.35	0.59
중현리	149	348	80.54	41.33	80.06	0.67
정포리	134	348	80.72	43.53	48.02	0.55
기 타	118	331	75.16	34.43	48.70	0.60
서면	1,339	3,718	77.26	398.67	536.50	0.70

자료 : 서면, 「통계연보」, 1997.

② 수산업 현황

수협중앙회의 「1997년 어촌계 현황」에 따르면, 남해군은 어획량의 경우 전국의 5.56%, 경남의 40.16%를 차지하나, 생산금액에 있어서는 전국의 4.74%, 경남의 21.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수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선어업보다는 양식어업 위주의 수산업이 발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면지역의 경우는 연간어획량은 4,359M/T, 생산금액은 43억 9,500만원으로 각각 남해군의 7.16%,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수도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7〉

어업생산 및 소득 현황

구 분	연간어획량 (M/T)	어획금액 (백만원)	호당평균소득 (천원)
전 국(A)	1,094,833	1,582,190	18,101
경 남(B)	151,653	348,940	18,893
남 해 군(C)	60,909	74,933	19,040
소 계(D)	4,359	4,395	18,150
장 항	1,040	1,071	18,400
서 상	714	735	18,000
작 장	735	620	17,500
남 상	641	546	17,800
염 해	350	470	18,600
정 포	879	953	18,600
C/A(%)	5.56	4.74	105.19
C/B(%)	40.16	21.47	100.77
D/C(%)	7.16	5.87	95.33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현황」, 1997.

서면지역의 호당평균 어가소득은 1,815만원으로 남해군의 호당평균 어가소득인 1,904만원보다 약 100만원이나 낮은 것으로 이 지역의 어업생산력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해안공간의 이용과 활동의 계절성

서면권역의 해안지역은 전 계절에 걸쳐 수산업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계절을 중심으로 낚시 등 일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선어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중 해안지역의 어업활동은 유지되고 있으며 낚시객들의 관광이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도

어촌계원들의 소득구조를 보면 어가평균소득 1,815만원 중 어업소득은 944만원으로 추정되어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외소득은 48%로 전국평균치에 비해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5) 미이용 또는 장애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미이용시설로는 현재 서상지역의 9만 7천여평에 이르는 매립부지가 있으며, 현재 군소유의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체육공원 및 휴양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 해양관련사업의 공간 과부족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을 중심으로 공간부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8〉 남해군 어항별 선착장 소요

단위 : m

어항명		톤급별 어선척수(2006)				소요연장	기시설	실운용 가능연장
		계(척)	1톤 미만	1~5톤	5톤 이상			
장	항	61	18	43	—	176	120	80
작 장	작장	12	4	8	—	34	117	20
	예계	21	6	15	—	61	147	40
	상남	12	4	8	—	34	178	15
남	상	42	13	29	—	120	215	70
염	해	67	20	47	—	193	149	70
정 포	노구	31	9	22	—	90	62	40
	정포	22	7	15	—	63	180	40
	회룡	8	2	6	—	24	—	—
계		276	83	193	—	795	1,168	373

자료 : 남해군 어항대장.

2006년의 어선세력 추정에 따른 선착장 소요연장은 권역내 총 795m로서 실 운용가능 시설인 373m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7) 토지/바다 수요 및 공급가능성

추가적인 토지공급(매립)은 권역의 여건상 어려우며 바다이용은 광양제철의 입주시 양식면허가 보상완료되어 더 이상의 개발은 수용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여수만이 항로로 이용되고 있어 심해어장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 부적합한 항이용 행태 및 항시설

현재 권역내의 항은 수산업의 독점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계절에는 비공식적으로 낚시객 및 기타 관광객들의 이용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항 인근의 주차장 부족과 어구들에 의한 미관저해가 나타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2) 토지/바다이용 부문

(1) 해양관련 산업에 대한 대체압력

현재까지는 수산업을 대체할 산업부문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자연탐방객과 낚시객 위주의 관광객으로 인해 서서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업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수산업의 쇠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2) 소유형태의 문제점

토지의 소유는 대부분 현지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부재지주 토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이용은 현지인이 하고 있다. 바다이용은 양식업이 대부분 보상되어 이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3) 금지구역, 유희토지, 미관저해토지 현황

권역내 토속종교와 관련된 금지구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농어촌이 그렇듯이 정자나무나 사당 등이 임야지역에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친수공간과는 거리가 멀어 개발 제한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4) 기타 토지이용 갈등

토지와 관련된 드러난 대규모 갈등은 없으나, 서상지역에 조성된 매립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소유주인 군과의 일부 이용계획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수만 항로준설토의 매립으로 상당부분 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은 일부를 이용하고자 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겨울철 운동팀들의 동계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불법으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서면은 바다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타 인접 읍면에 비하여 경작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야의 비율이 타 읍면보다 높고, 대지의 비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권역내의 일반적인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9〉

서면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구 분	전	답	임 야	대 지	하 천	도 로	기 타	합 계
서면	3.96 (9.67)	5.33 (13.00)	28.09 (68.56)	0.77 (1.89)	0.65 (1.59)	0.95 (2.32)	1.22 (2.97)	40.98 (100)

자료 : 남해군, 「통계연보」, 1997.

3) 도시계획 및 경관구축 부문

(1) 주요 식생

권역내의 식생은 식량작물 889ha, 채소류 307ha, 시설채소 3ha 등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과일류 생산면적도 23ha에 이른다. 특히 남해지역은 전통적으로 유자와 마늘의 생산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2) 시가지역 특징 변화

자연부락별로 나누어져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마을간의 상호연계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마을내에는 경사지가 많아 가옥구조가 밀집되어 차량통행에 제한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보급이 늘면서 도로가 일부 확장되고 있으나 해안선을 이용한 도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각적 장애물

대부분의 지역에는 시각적으로 장애를 줄 만한 구조물이 없으나 서상지역은 해변에 바로 연접하여 숙박시설과 식당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배후권역에서 바다조망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4) 낙후된 호안시설

남해지역은 태풍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서면권역은 남해군의 서편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마을이 주로 산간부 경사지에 분포되어 있어 어선대피를 위한 호안시설이 대부분이며 호안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다.

4) 레크리에이션 이용 부문

(1) 과집중되거나 부적합한 공공시설

권역내에서 두드러진 공공시설은 없으며 노구리에 위치한 항로확인레이더가 인근지역에 소음과 진동피해를 주고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2) 미설치 레크리에이션 이용 요구

정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이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고, 특히 예계지역은 몽돌해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심이 비교적 깊어 해수욕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수심을 낮춰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3) 해면이용상 갈등

권역내의 정포지역은 수산물생산이 많고 갯벌이 발달되어 바지락 등 패류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일부 관광객 등에 의해 공동어장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나, 생산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이러한 자연조건을 이용한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관광 및 휴양산업 현황

남해군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68개의 도서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인 노량해협, 상주해수욕장 등의 뛰어난 해안경관을 지니고 있고, 금산 등의 빼어난 명산이 자리잡고 있어 해안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서면의 경우, 관광자원은 대부분이 낚시터로 한쪽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바지락 양식장이 어우러져 훌륭한 관광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해안이 경사가 급하여 평지가 별로 없어 경지가 부족한 데 반하여 곳곳에 암석해안이 많아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또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낚시터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해군의 관광객 현황은 1996년 287만 5천명으로 경상남도 전체 관광객의 0.08%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 6.38%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내국인의 증가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의 관광객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 지역의 관광업이 점점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표 V-10〉

남해군 주요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개소	주 요 관 광 자 원 명
공 원	국립공원	2	한려해상국립공원(노량지구, 금산·상주지구)
	군립공원	1	호구산
	일반공원	4	남산, 봉강산, 봉황산, 산성산
관광농원		2	한려관광농원, 화전관광농원
구 조 물		4	남해대교, 창선대교, 미조어업 전진기지, 해안일주도로
계 곡		6	복곡, 용문사, 화방사, 내산, 동천, 옥천
저 수 지		8	내산, 복곡, 오동, 갈곡, 옥천, 연죽, 남치, 다정
사 찰		8	용문사, 화방사, 보리암, 운대암, 금왕사, 포교당, 해관암, 성명사
해수욕장		6	상주, 송정, 사촌, 월포, 설리, 장포
몽돌 해변		6	물건, 향도, 초전, 선구, 숙호, 구미
낙시터		41	새존도, 노도, 조도, 호도, 마안도, 기천, 미조, 물건, 왕지, 목섬, 노량, 소치도, 유구, 향촌, 흥현, 염해, 서상, 꼭두방, 대량, 연포, 천포, 예계, 작장, 남상, 상남, 선구, 빗바위, 상주, 금포, 설리팔랑개, 새섬, 죽바위, 향도, 직량, 단항, 양화금, 노루목, 소랑, 감암, 동홍방조제
천연기념물		5	미조상록수림, 물건방조어부림, 왕후박나무, 갈화노티나무, 남해산타나무 자생지
특산물		5	유자, 치자, 비자, 마늘, 피조개
기 타		10	내산임도, 망운산, 물건방파제, 미조방파제, 어업전진기지, 강진만, 앵강만, 임진성 등

자료 : 1) 남해군, 「통계연보」, 1997.

2) 남해군지편찬위원회, 「남해군지」, 1994.

3) 남해군, 「남해군 장기종합개발계획」, 1998.

〈표 V-11〉

서면 주요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개소	자 원 명	소 재 지	비 고
저수지	1	연 죽	연 죽 리	
낙시터	6	염 해	남 상 리	
		서 상	서 상 리	
		예 계	작 장 리	
		작 장	작 장 리	
		남 상	남 상 리	
		상 남	작 장 리	
기타 관광자원	1	망 운 산	연 죽 리	
문화재자료	1	운 곡 사	중 현 리	1983. 7.20 지정

자료 : 서면, 「통계연보」, 1997.

〈표 V-12〉

남해군 연도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

연 도	남 해 군			경 상 남 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1986	1,549,210	352	1,549,562	21,327,919	152,194	21,480,113
1988	2,111,535	1,017	2,112,552	23,634,725	112,610	23,747,335
1990	1,848,410	1,230	1,849,640	20,065,121	56,034	20,121,155
1992	1,940,290	1,322	1,941,612	21,555,308	158,269	21,713,577
1994	2,207,340	1,431	2,208,771	24,400,338	242,325	24,642,663
1996	2,873,280	1,777	2,875,057	35,989,708	313,938	36,303,646
증가율	6.37	17.57	6.38	5.37	7.51	5.39

자료: 1) 남해군, 「통계연보」, 각년도.

2)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5) 공공접근 이용 부문

(1) 낙후된 공공시설

남해군은 해안도시로서 용수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지난 10년간 급수현황을 살펴보면, 급수인구의 증가추세에 비해 급수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시간제 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1인당 1일 급수량은 165ℓ로서 전국 409ℓ와 경상남도의 330ℓ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면의 경우는 설천면과 창선면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이다.

〈표 V-13〉

남해군 및 서면 상수도 현황

취수원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남해군	66,362	21,378	32.2	11,320	3,724	165
서 면	5,267	—	—	—	—	—

자료: 남해군·서면, 「통계연보」, 1997.

하수도시설도 전무하여 도로의 측구나 노면을 통하여 우수와 함께 자연상태로 하천 및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우수와 오수가 하천 및 해양으로 방류되어 수질, 토양, 환경 등의 오염원인이 되고 있다.

(2) 바다접근 장애물

예계리로부터 남상리까지는 해안을 접근하는 도로가 급경사이고 폭이 좁아 차량의 접근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또 접근후에도 주차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하여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해변공간과 중심지와의 분리

본 권역의 특징중 하나가 마을과 해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로의 주활동지가 분리되어 갈등이 발생될 우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시 공동이용이 어렵고 주민들의 관리범위가 넓어지는 제약이 있다.

(4) 안전대책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은 현재 없는 실정이며 면사무소와 경찰지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3속, 약국 4곳이 권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광객의 안전사고는 없었으며 조명시설의 확충과 순찰강화를 통해 매년 안전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고 있다.

(5)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성

남해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역으로 산사태가 홍수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등 시설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6) 교통순환 및 주차장

(1) 교통 및 도로조건

남해군은 도서지방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남해대교, 남해~이동~미조~창신을 잇는 19번 국도와 3번 국도, 그리고 그 도로상의 각 면소재지 등 중심지를 1024번 지방도와 군도 등이 연결되어 있는 순환도로가 주요 도로망 형태를 이루고 있다.

도로의 총연장은 305.3km로 포장률은 86.8%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도의 경우 99.4%의 포장률을, 지방도의 경우 94.1%, 군도는 71.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V-14〉

경상남도 및 남해군 도로시설 현황

단위 : km, %

구 분	총연장		고속국도		국 도		지 방 도		군 도	
	연 장	포장률	연 장	포장률	연 장	포장률	연 장	포장률	연 장	포장률
경 남	11,560.0	62.6	349.9	100.0	1,379.2	98.0	2,696.8	66.7	7,134.1	51.3
남해군	305.3	86.8	—	—	71.9	99.4	115.7	94.1	117.7	71.5
서 면	22.2	100.0	—	—	—	—	13.9	100.0	8.3	100.0

자료 : 1) 경상남도, 「통계연보」, 1997.

2) 남해군, 「통계연보」, 1997.

서면의 도로현황은 지방도 13.9km, 군도 8.3km로 10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어 남해군 전체에서 가장 포장이 잘 되어있는 곳이다. 즉 폭 6m의 1024번 설천~창선간의 지방도가 서면에서는 정포~장항 구간이며, 폭 6m의 회룡~현촌, 연죽~동정, 연죽~서상 구간의 군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마을을 지나 어촌계로 연결되는 도로의 경우, 포장률은 100%이나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중형이나 대형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

〈표 V - 15〉

서면 주요도로 현황

구 분	노선 번호	노선명	구 간	연 장		폭(m)
				포장(km)	포장률(%)	
지방도	1024	설천창선선	정포~장항	13.9	100.0	6
군 도	4	운양선	연죽~동정	2.0	100.0	6
	5	서고선	회룡~현촌	3.0	100.0	6
	6	상남선	연죽~서상	3.3	100.0	6
서 면				22.2	100.0	6

자료 : 서면, 「통계연보」, 1997.

(2) 주차장이 필요한 친수공간의 분포

현재까지 관광객의 내방이 많은 장항, 서상, 예계, 남상지역에는 대부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상지역은 향후 토지개발계획에 따라 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기별 교통로 이용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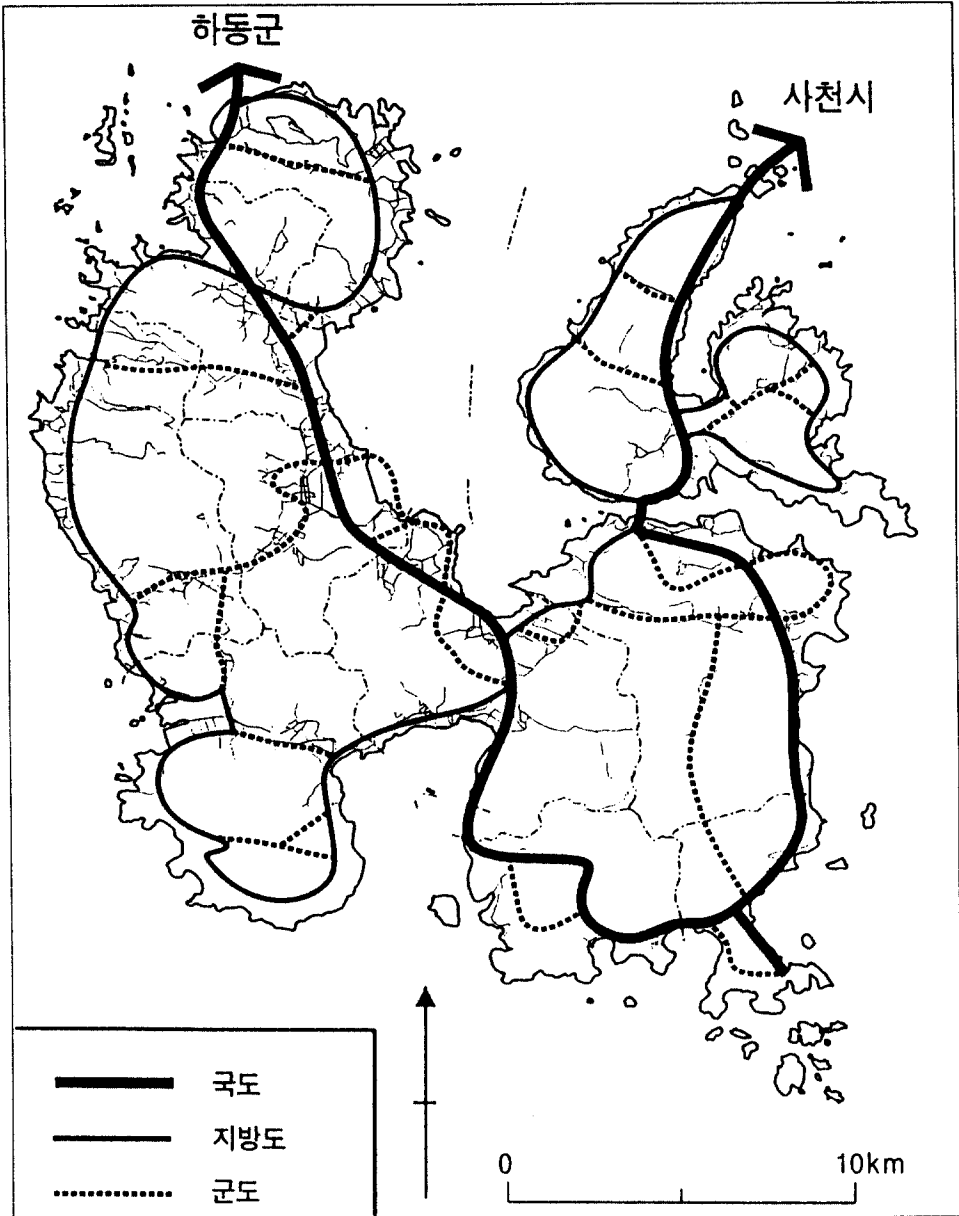
권역내에서는 마을을 관통하여 해안으로 접근하는 지역이 많다. 특히 작장과 남상지역은 급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과 해안접근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이용상 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7) 역사문화적 이용 부문

서면권역의 명승고적으로는 중현리의 운곡사, 남상·중리·노구의 삼송, 옥기산성, 대장군지, 미공군전공기념비, 빈대절터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상태는 좋지 않으며 이용객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림 V-8〉

남해군 도로망도



8) 환경관련 이용 부문

정포지역은 갯벌이 분포되어 있고 예계지역은 몽돌 해변, 갯바위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권역내에서 대량의 수질오염 발생시설은 없으며 오염원은 생활오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서상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의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것이다.

(1) 기상조건

남해군 지역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여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동절기에도 온화한 편이어서 아열대 식물이 자라기도 한다. 과거 10년간(1987~96년) 연평균 최고기온은 32.7℃, 연평균 최저기온은 -6.1℃이며, 평균기온은 14.1℃로 같은 위도상의 타지역보다 온화한 편이다.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강우량은 1,682.1mm, 동기간 중 최다우년은 1991년의 2,264.3mm이며, 최소우년은 1988년 1,093.1mm이다. 이곳의 강우량은 전국평균 1,100mm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 인근인 여수해만 일대의 조석은 1일 2회조인 반일주조로 약간의 일조부등이 있으며, 만 전체에서 위상이 같다. 조석주기에 따라 왕복성 조류가 흐르고 조차는 중조차 범위에 속한다. 대조기의 조차는 여수만에서 290cm, 묘도 동측의 지진도에서 320cm, 광양만 서측에 위치한 장도에서 335cm로서 만의 서측으로 갈수록 조차는 증가한다. 간만의 차이는 유포항에서 최대 2.28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형조건

남해군은 소백산맥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망운산(786m), 금산(681m), 원산(627m) 등 높고 빼어난 산악과 기암괴석이 많아 하천이 짧고 평야가 협소하다.

해안은 굴곡이 심하며 302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에 전역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륙은 산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표주박형의 지형이다. 남해의 수계는 크게 발달한 하천이 없으며 대체로 중소하천으로 하폭이 협소하고 유로 연장이

짧으며 구배가 급경사로 군내에서 발원하여 유속이 빠르게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남해군의 하천은 준용하천 26개천이 있으며 1996년 46.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면지역은 산악과 계곡이 많아 하천이 짧고 평야는 극히 협소하다. 해안은 굴곡과 경사가 심하며 일부지역을 제외한 면내 전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으며, 해안까지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급경사며, 그 급경사를 따라서 촌락이 형성되어 있다.

9) 법제도적 검토

(1) 상위계획

본 권역과 관련되는 상위계획으로는 경남종합개발계획, 경남 관광종합개발계획, 서부경남권 개발계획,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한려해상 개발계획 등이 있다.

①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1992~2001)

○ 기본목표

- 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의 성장 유도
- 생활환경의 질적수준 향상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지역의 자율성 제고 및 기능 강화

○ 남해군 지역(해안개발권) 관련사항

- 남해, 삼천포, 통영, 거제를 연결한 사계절 관광루트 개발
- 해상국립공원인 한려수도의 관광자원개발과 수자원 보호·육성
- 남해안 각 지역을 연결하는 반나절 관광권 형성
-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생산기반의 구축, 주거휴양기능의 강화
- 도서 및 낙후지역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단위별 균형적 학교 배치

② 경상남도 관광종합개발계획(1991~2001)

○ 기본목표

- 한려해상과 합천권, 부산·경주권의 관광특성을 도출하여 관광자 원화
-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 대처방안 강구
-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발전효과 도모

○ 개발방향 및 전략

- 남해군의 경우는 해양휴양지 및 관광어촌 등으로 개발

③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1995~2010)

○ 기본목표

-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기반 조성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
-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거점으로 부상

○ 개발방향(해안지역)

- 수산물생산 연구, 가공, 유통기능 확충
- 한려해상권 관광벨트의 연계
- 남해안 관광순환도로 확충으로 해안형관광 거점화

○ 관광개발 계획(해안지역)

- 남해안관광과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계 관광루트 개발
- 여수권과 연계한 해상관광루트 개발 및 해양경관 위주의 관광지 개발
- 남해군 석교관광지(해안 주말휴양지), 송정관광지(해안경관 탐방, 주말 휴양지, 상주해수욕장 연계 개발)

④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개발방향

- 남해안 관광과 지리산 관광을 연계하는 도로 확보
- 남해안 관광도로변 해양·역사탐방형 관광지 조성
- 수산물 생산·가공·연구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⑤ 한려해상권 관광종합개발계획(1997~2001)

○ 기본목표

- 한려해상권의 잠재적 가치의 재발견과 부존자원의 고유성 창달
- 미래 여가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풍요롭고 활기찬 관광레저공간 창출
-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수준 제고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고양
- 국민관광진흥 및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하며, 경남의 자립적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한려해상 관광벨트 개발구축
-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낙후지역의 경제기반 강화 및 산업구조 재편
- 동북아시아 해양관광요충지로 개발하여 한국관광의 재도약의 계기를 구축

(2) 각종 규제 및 개발여건

권역내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개발제한 규제는 없으며 농림지의 이용시 농림지 전용규제, 매립관련 공유수면이용규제 등 일반적인 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0) 서면권역의 특징

이상의 조사된 서면권역의 현황과 지역 현지조사를 토대로 권역의 특징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의 급격한 퇴조

광양제철 등이 입주하면서 대부분의 양식어업면허가 보상을 받아 소멸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산물 생산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의 수산업이 양식어업에 기반을 두는 경향과 비교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산업 세력 약화가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육상 양식장의 도입, 어선규모의 대형화 등의 현상

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남해군내의 가장 낙후지역

군 전체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설천·노량지역, 동측의 창선·지족지역, 남측의 상주·미조지역에 비해 서면권역은 크게 낙후된 개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시설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어업기반시설 낙후

서상항을 제외하고는 어항의 기반이 몹시 부실하며 황천시 대피부두가 없는 실정이다. 또 간조시 어선의 접안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작업시간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4) 가용토지 양호

서면지역에는 1986년 광양만 항로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조성된 9만 7천 여 평의 토지가 군소유지로 남아 있으며 현재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투자계획을 준비중에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인근 관광시장여건 양호

남해군의 연간 관광객 수는 1996년 현재 287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지역이 산악, 해양 등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로 인해 좋은 유인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광양지역의 시장성과 창선대교의 개통이 이루어질 경우 관광잠재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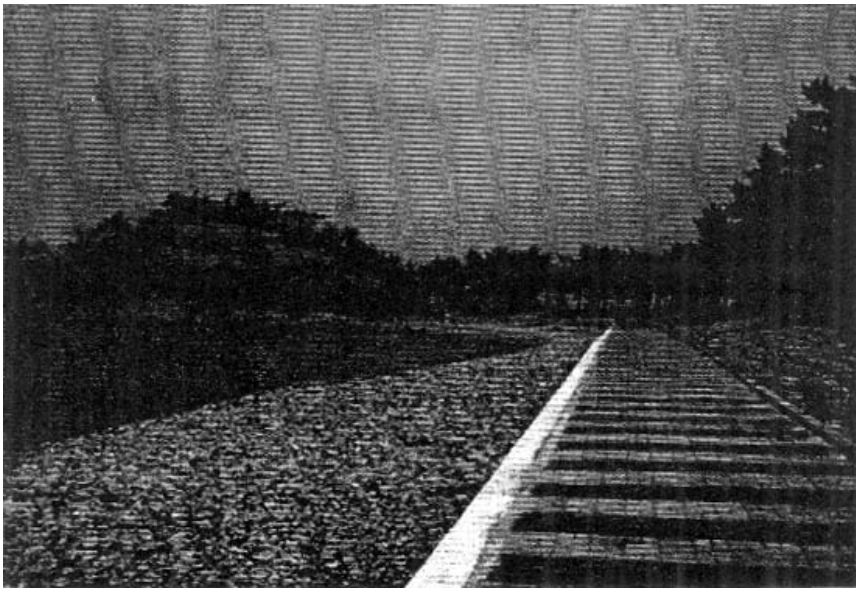
(6) 다양한 해양자연환경

본 권역은 해안선의 길이가 21km에 이르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단순한 구조를 보이지만 매우 다양한 해안지형을 보유하고 있다.

장항지역은 송림숲과 이어지는 몽돌 해변이 펼쳐져 있고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좋은 풍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V-9〉

장항지역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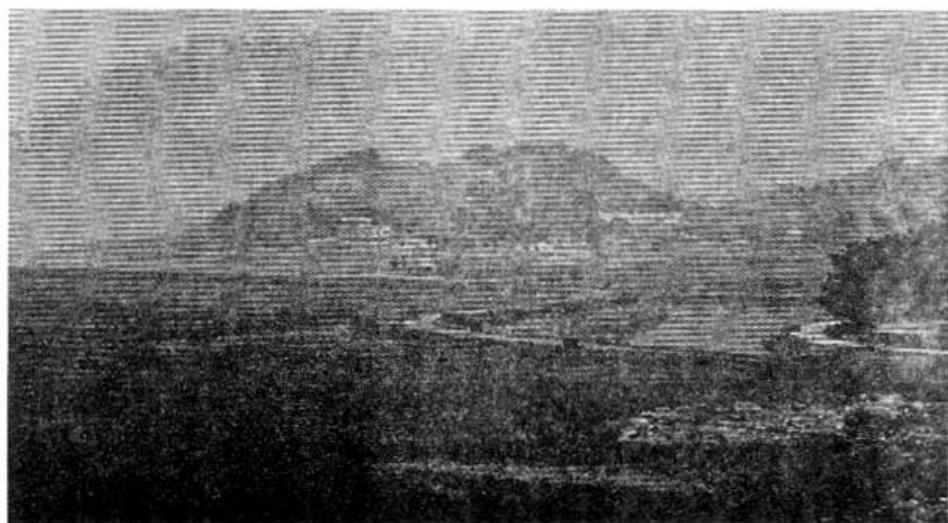


서상지역은 매립지를 이용한 잔디밭이 조성되어 겨울철 각 지역의 축구팀들이 동계 훈련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여유토지가 풍부하여 개발여건이 우수하다.

작장지역은 예계항을 중심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고 조경이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취락지역과 분리되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에 갯바위가 발달하여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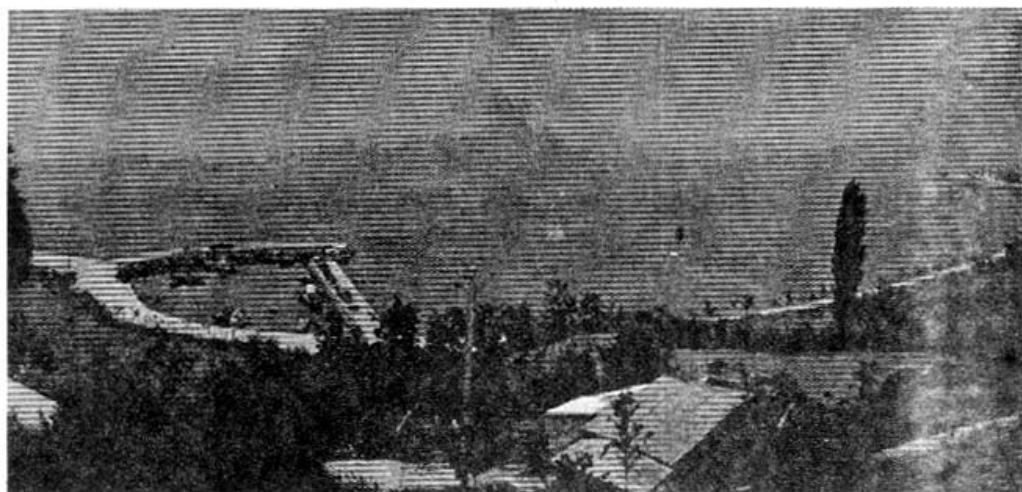
〈그림 V-10〉

서상지역 전경



〈그림 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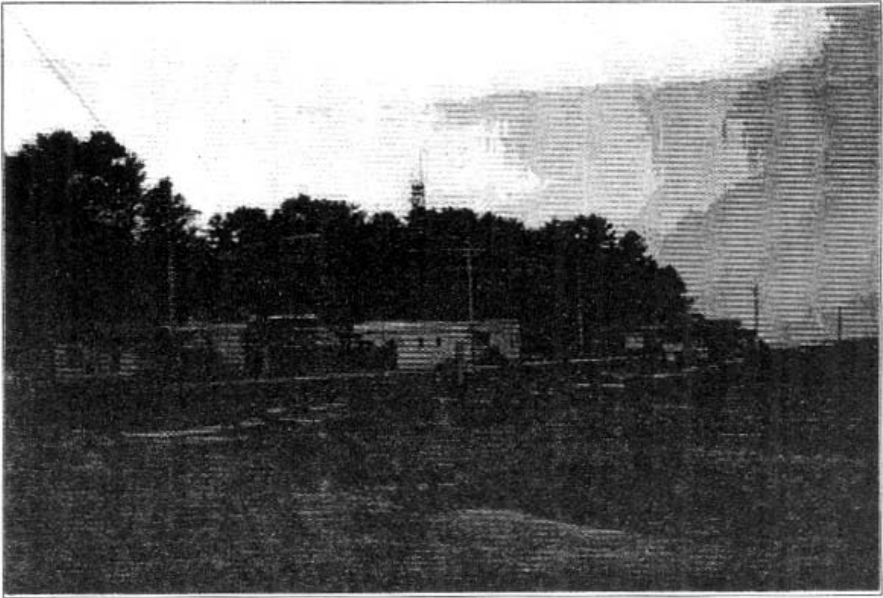
작장지역 해변



정포지역은 갯벌이 발달하여 이를 이용한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2〉

정포지역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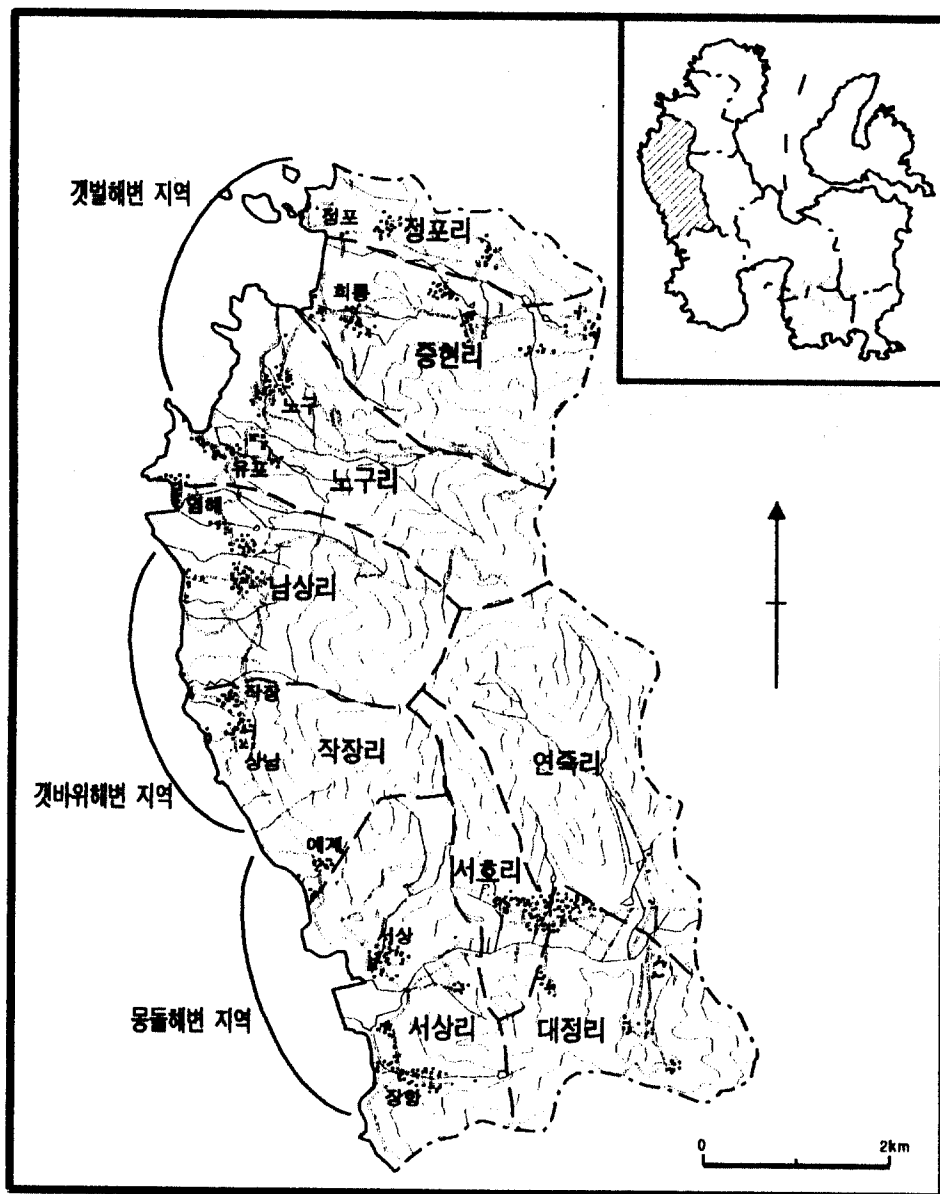
이렇듯 서면권역은 해양자원이 다양하고 소권역별로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바다를 주제로 한 개발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7) 주민 및 행정기관의 개발열의

지역의 주산업인 어업의 퇴조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우 적극적인 개발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의 위기로 인식하여 주민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서상·장항의 매립지를 이용한 적극 개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3〉

서면권역의 해안자원환경 분포



3. 사례지역의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안)

1) 서면권역 개발방향

서면권역은 장기적으로 수산업 단일산업에 의한 지역경제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해안지형을 보유하고 있고 기후조건 및 도로여건이 양호하여 관광지역으로의 개발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하수도나 주차시설, 상업용시설 등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어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산업 기반시설도 몹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면권역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어업 기반시설의 친수성을 크게 강화시켜 관광개발을 통한 수산업의 유지와 어촌의 재활력 공급, 주민의 소득향상을 추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2) 개발계획 수립

권역내 각 소권역별로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표 V-16>과 같은 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개발효과

서면권역은 80년에 비해 인구가 44%나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지역의 탈어촌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 이후 인구변화의 폭은 줄어들었지만(1990년 5,563명→1996년 5,267명) 이것은 고령화 되면서 안정화되는 인구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자연감소가 일어날 경우 다시 한번 급속한 인구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으로 어촌의 유지가 어려운 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권역의 어촌 해안휴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어촌친수공간의 설치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이로 인한 인구의 유입, 소득증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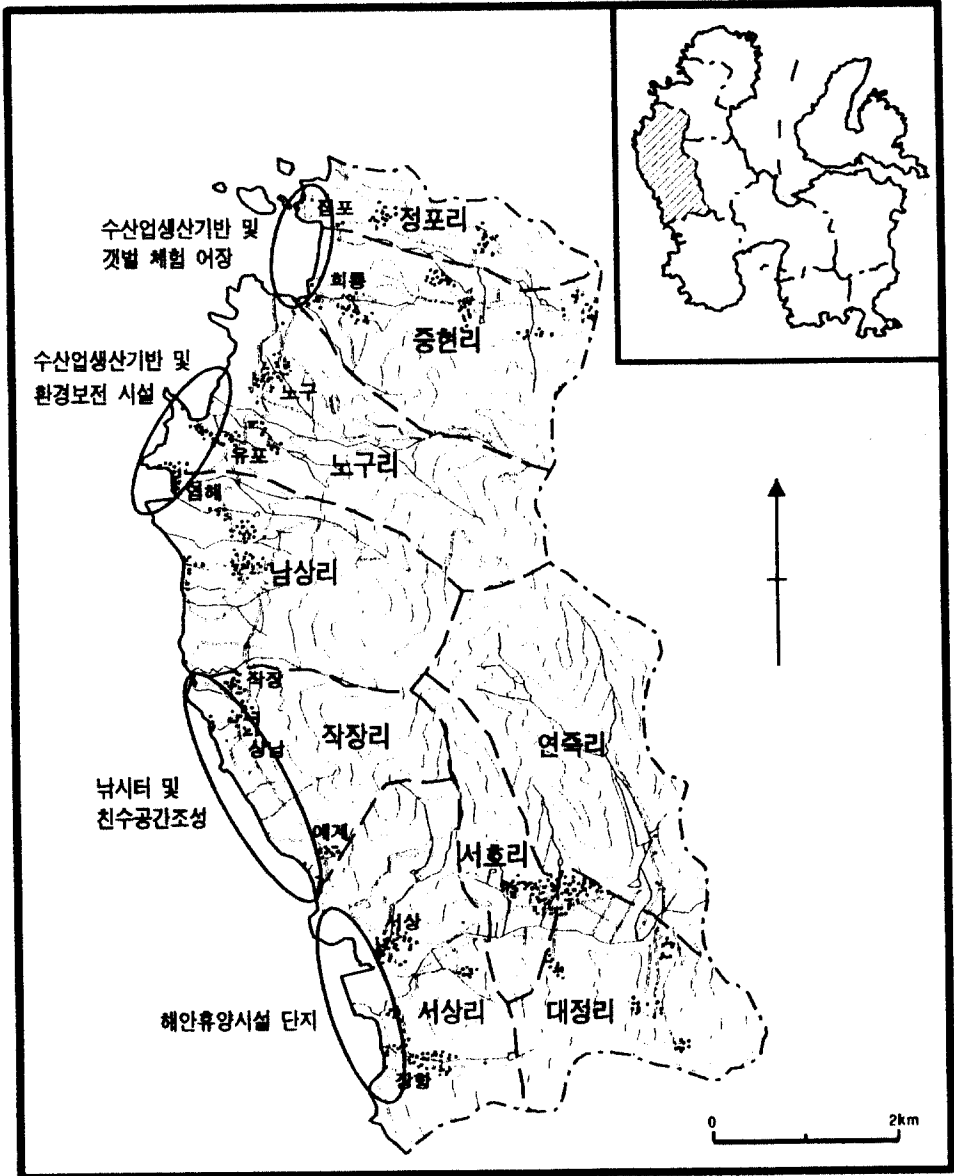
〈표 V-16〉

서면권역 어촌친수공간 계획(안)

소권역명	특징	사업명	투자자원 (안)	비고
서상·장항 소권역	• 가용토지조건 우수 • 관광어촌기설치 (장항) • 2종어항시설 완비 • 서면권역의 중심지	• 해안휴양시설단지 (해수탕, 친수공원, 주차장, 산책로, 체육공원, 숙박시설, 수산물 판매장, 오수처리장) • 상수원 개발 • 선착장 등 수산업 기반시설	공공투자, 민간 공공투자 공공투자	• 국토이용계획법 • 건축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 공원법 • 주차장법 • 수질환경보전법 •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예계·상남 소권역	• 경관 우수 • 도로여건 양호 • 취락지와 분리 • 갯바위·몽돌 해변 발달	• 낚시터 개발 • 몽돌해변확폭 • 해안도로 친수성 강화 • 편의시설(화장실, 매점) • 조명시설	공공투자 공공투자 공공투자 공공투자 공공투자	• 공유수면관리법 • 도로법 • 전기사업법 • 군사시설보호법
염해·유포·노구 소권역	• 수산업 비교적 성행 • 노동인구가 비교적 많음 • 갯바위 지역 발달	• 어구창고 등 수산업 기반시설 • 오수처리시설 • 전망대	공공투자 공공투자 공공투자	• 공유수면관리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 산림법
회룡·정포 소권역	• 간석지 발달 • 수산물 풍부 • 기반시설 미흡	• 체험어장 • 상수원 개발 • 선착장 등 •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민간투자 공공투자 공공투자	• 수도법 • 공유수면관리법

〈그림 V-14〉

서면권역 어촌친수공간 개발계획



어민들의 주도적인 지역개발 참여를 위해 지분참여나 분양참여를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낙후된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은 점차 대형화되는 어선의 수용을 위한 공간마련과 친수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관광편익이 높아질 것이다.

체험어장과 몽돌 해변 조성은 가족단위 도시지역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매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상수원개발, 도로 등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공간을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시된 투자계획안은 주민들의 협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의 규모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第6章 結論 및 綜合建議

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난관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어촌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어촌이 가진 바다자원은 수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관심이 높아지는 해양관광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해양자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요구도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들은 어촌의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에 대응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촌친수공간은 특정한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친수(산)의 기회제공’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현재 어촌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효과를 즉시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단계에 보다 많은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광은 감동과 놀라움, 흥미적 요소가 있어야 하며, 특히 배후여건이 타관광지에 비해 열악한 어촌지역에서는 독특한 문화와 산업,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정비가 이루어져야 그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촌친수공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사업 추진방식인 하향식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어촌친수공간을 자신들이 만든 공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자신들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여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외국사례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기간이 설령 오래 소요되더라도 지역민과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 어촌친수공간의 개념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못하고, 어촌이 가지는 토지이용적 제약, 어민들의 운영관리능력 취약, 친수공간의 기술개발 미흡으로 인한 고비용구조 등 사업집행을 위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어촌의 재활력과 재도약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어촌개발 관련사업시 친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관련기술의 발전과 사업비 절감공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추진과정을 제도화하여 개발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촌지역 중 친수공간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한 자료수집과 평가를 통해 어촌지역의 소득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각종 개발계획시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어촌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의식과 어촌이 나와 나의 후손들이 지켜 나가야 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마을가꾸기와 소득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중해의 ‘까사레스’라는 조그만 어촌마을은 수백년간 건물을 지을 때 흰 회벽체와 붉은 기와를 고집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온 결과,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호칭을 받고 수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다. 주민스스로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이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이다.

参考文献

1. 국내문헌

- 김광두 譯, 「21세기 Waterfront」, 1998.
- 이재천, 「관광어촌」, 백산출판사, 1994.
- 경상남도, 「유포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1995.
- 남해군 서면, 「서면통계」, 1997.
- 남해군, 「남해군 어항자료집」, 1997.
- _____, 「남해군 통계연보」, 1997.
- 내무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97.
- 농림부, 「권역별 어촌개발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연구」, 1995.
- _____, 「어촌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 업무 편람」, 1996.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계획론」, 보성사, 1997.
- 문화관광부, 「'9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 부산시정연구단, 「위터프론트와 미래형 도시개발」, 1992.
- _____, 「'98 어촌계 분류 평정」, 1997.
- 수협중앙회, 「어촌계 현황」,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중심권 개발의 이론과 지침」, 1981.
- _____, 「바다 및 어촌종합개발방향과 정책과제」, 1987.
- _____,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1995.
- _____, 「어촌지역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199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도서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1997.
- _____, 「해양도서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1998.
- 해양수산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 1997.

- _____, 「21세기 해양수산물장기발전구상」, 1998.
- _____, 「'97 어가경제통계」, 1998.
- _____, 「남해서면권역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서」, 1998.
- _____, 「수산물개척 추진성과와 21세기 수산물정책방향」, 1997.
- _____, 「수산물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 _____, 「친수성 항만공간 개발 실시계획 검토 및 기본구상」, 1998.
- _____, 「해양관광 현황 및 진흥방안(내부자료)」, 1998.
- _____, 「해양수산물통계연보」, 1998.

2. 외국문헌

- J. W Good and R. F. Goodwin, *Waterfront Revitalization for Small Cities*, 1992.
- Ann Breen and Dick Rigby, *The New Waterfront*, 1996.
- 畔柳昭雄, 「海洋性レクリエーション施設」, 1997.
- (社)日本海洋開發建設協會, 「人と自然に優しい, 海洋施設めぐして」, 1995.
- 綜合コニコム, 「漁港・漁村 活性化・集客戦略 資料集」, 1995.